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받은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34-3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6월 16일 (토) 제 168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억 만들자!

2018년 여름방학 맞아 크리스천 부모로 해야 할 일 및 실제 요령 소개

미국내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6월 하순에서 말경 방학에 들어간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몸도 맘도 지친 아이들에게는 마냥 반갑고 고마운 선물이다. 친구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바닷가도 갈 계획에 마냥 즐겁기만 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여름방학이 다가올수록 걱정부터 앞선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침마다 아이들 깨우느라 전쟁을 치루지 않아도 되고 도시락 걱정도 안 해서 부모들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걱정들을 할까?

보통 여름방학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해 8월말까지 2개월 반가량이나 되기에, 많은 부모들이 이 긴긴 방학동안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무것

도 안 시키자니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많은 한인 가정들이 딸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2개월이 넘는 방학동안 아이들을 집에 둘 수도 없고, 데이케어나 학원 등에 보내자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 픽업 스케줄도 만만하지 않다. 방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VBS부터, 학원, 캠프 등에 딸벌이에 바쁜 부모들이, 서로 양해하면서 하루씩 교대로 맡아서 픽업하지만, 여간 분주한 것이 아니다.

또 다시 돌아 온 두 달 반 여름방학,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 부모들로서 아이들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부모들의 경우, 여름방학은 그저 친구들과 나가 놀고, 시골이나 가고, 곤충 채집도 하면서 마냥 신나고 즐겁기만 했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과 청소년 문제 상담가들은 여름방학 이야기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학기 중에 학교가 말아 하던 아이들의 교육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고스란히 부모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들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TV만 본다든지, 컴퓨터 게임이나 SNS 만 하다가 여영부영 개학을 맞이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고, 뒤져진 학습을 보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과 대화를 갖는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정서적 안정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된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집 안일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정리까지 마치면, 벌써부터 졸려온다. 그러나 하루 30분씩이라도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느 순간 올바르게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라는 장벽도 이 기간 동안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과 부모로서의 고충들을 서로 진솔하게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진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자양분이 되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한편 여름방학이 되면, 부모들의 주머니가 아주 많이 가벼워진다. 9-10주에 이르는 방학 기간 동안 아이를 무작정 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명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캠프에 보내기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학기 중에는 학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캠프 비용을 '가뭇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통 집에서 다

니는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는데,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당 2백 달러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명문대학이나 사립학교 여름 캠프는 주당 1천 달러를 상회한다. 중·고등학생은 캠프 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등 선택의 폭이 넓어 주머니가 가벼운 부모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5천-1만 달러 정도가 들어 역시 부모의 허리가 휘는 수준이다.

보통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를 여름 캠프에 보내지만 한국 부모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보낸다.

(5면으로 계속)



영적, 감정적, 심리적, 지적으로 자기인식하도록

리더십저널, 카슨 퓨 박사의 차세대 리더 키우는 목회자 노하우 소개

오늘날 수많은 청년 리더가 지닌 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은 과거의 리더 못지않다. 그러나 그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그 꿈을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신의 비전이 분명한 모양을 갖추기까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앙적 고결함의 모델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 성품을 연마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경험해야 한다. 실력 있는 멘토와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리더들의 리더, 카슨 퓨(Dr. Carson P.ue, 국제애로리더십미니스트리 Arrow Leadership Ministries 전 회장)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육하고 멘토링 하는데 15년 이상 헌신)는 교회에서 새내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준다.

예수님과 관계가 능력의 핵심...주님 주시는 평강 있어야 7가지 공격(교만, 욕욕, 영적과욕, 영적 권력욕...) 피하도록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는 21세였던 큰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복음을 전하는 차세대 전도자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됐다. 그는 청년 리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갖는 파급효과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며, 그 일에 헌신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역자가 됐다.

오늘날 최고의 리더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목회자는 젊은 크리스천 리더가 개인적으로 성품, 영성, 전문적인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멘토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p>시론 최해근 목사</p>	<p>2면</p>	 <p>인/티/뷰 김재열 목사</p>	<p>14면</p>
--	-----------	---	------------

"TURN TO ME..."

JOINT YOUTH RETREAT
JULY 16 (Mon) - 18 (Wed)
@ FULL GOSPEL PRAYER MOUNTAIN

"Turn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sa. 45:22)

제 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 기간 2018년 7월 16일(월) - 18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등부, 고등부 학생 (6-12학년)
- 모집 6월 24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신청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lafgcd@gmail.com



Scan me



시론

자본은 인격이 아닙니다!



최혜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4월 12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 광고회사와의 회의 중 자신이 던진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물음을 던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일이 일과만파로 확대되면서 마침내 경찰조사와 구속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이전의 행적들을 종합해 보면 어쩌다 회의도중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우 외에도 회의 도중 누군가에 의해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언어가 가차 없이 정도도 엉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비인격적인 모욕과 치욕을 대한항공 오너 가족들로부터 당했던 대한항공 직원들 500여명이 소셜 미디어에 채팅방까지 만들어 조씨 일가를 회사에서 떠나게 하려는 비참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조씨 집안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부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오너집안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일선에서 밀어 내려는 일에 더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씨이버스카이'라는 회사와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입찰을 통해 일감이 주어지기보다 강자가 가진 힘을 통해 부당하고 이기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원은 소위 말하는 재벌 3세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이트론도 그룹의 3세가 부당이익을 취하다 추징금 107억을 받았고 효성그룹 3세 역시 30억의 과징금을 받고 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업자였던 1세와 달리 수고와 땀과 인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2세와 3세들이 자본을 무기로 삼아 경영진에 합류하여 물건을 던져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는 잘못된 시대와 흐름, 곧 자본이 인격과 힘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돈이 곧 인격이 되는 사회나 가정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사회가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선교지에서 보게 되는 미묘한 미국여권 소유자의 우월감(?)이 혹시 내 속에는 없을까요? 조용히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그 모든 만물을 질서와 원칙 속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 하심과 따뜻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그 겸손함과 사랑만이 돈과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사람의 인격을 유린하는 깨어지고 일어버려진 우리시대의 소망입니다!

살롬.

thechoi82@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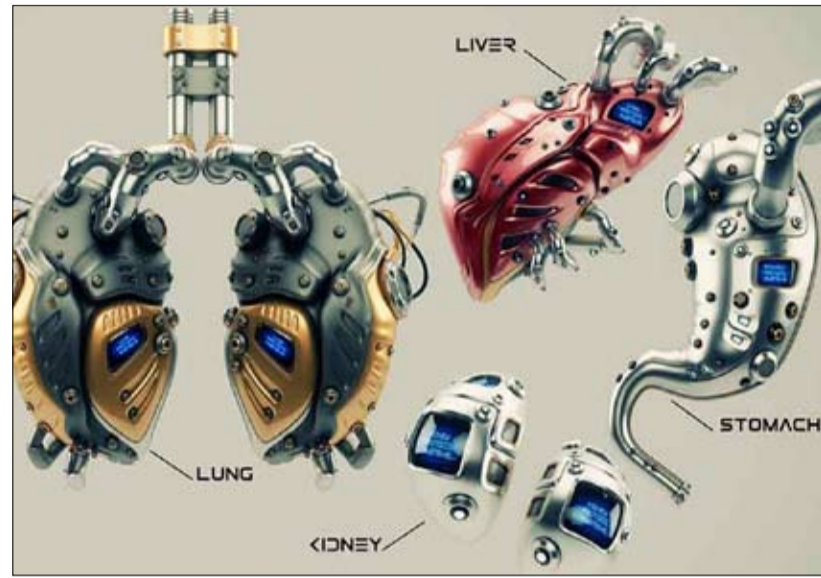
인공장기 연구와 실용화, 과연 어디까지...?

언다크, 과학전문기자의 폭주하는 인공장기 기술 소개와 윤리적 문제점 게재

미국에서만 11만4,700명의 성인과 소아가 신장과 다른 장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중 20명이 매일 사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장기를 동물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다른 방법들은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과학소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다. 새로운 의학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장기 부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과학전문 기자, 잉페이 첸(Ingfei Chen)은 “언다크(UNDARK, 과학전문지)”를 통해,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첨단 인공 장기 방법들 소개와 함께 이러한 윤리적 도전들을 진지하게 던져준다(How Far Should Science Go to Create Lifesaving Replacement Organs? As we envision a new era of regenerative medicine, sci-fi-esque scenarios are raising thorny ethical issues. Just how far is society willing to go?).

나는 한 인터뷰에서 한때는 흥미로운 기술이었지만 이제 점점 이상한 기술로 바뀌고 있는 줄기세포를 응용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인공장기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그때 나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UCSF)의 세포공학연구소 공동 소장이자 생명공학자인 제브 가트너와 소위 '오가노이드(organoid)'라 불리는, 실험실의 인간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특정한 장기의 세포 조직에 대해 듣고 있었다. 이 조직은 인간 장기의 생성과 질병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조직을 이용해 실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신장, 췌장



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쥐의 췌장을 가지게 됐다.

이 실험은 오늘날 키메라 장기 제작기술로 발전했고 나카우치의 연구팀은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겨와 다른 연구팀과 함께, 한 사람의 피부나 혈액에서 만능 줄기세포를 찾아 이 세포를 전-배아 상태의 돼지나 양에게 주입해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어떤 윤리학자들은 이런 인간-동물 키메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돼지 몸속에서 자란 장기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예상치 못

인간장기를 동물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술(배반포 보완법)

2015년 NIH 연구지원비 잠정중단 결정...기술 개발은 계속

등의 장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실험 중에는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낸 실험들도 있다. 그러나 제브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다. 그는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대체 장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반포 보완법(blastocyst complementation)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다. 사실 이 기술은 유전학을 이용해 특정한 개인을 위한 장기를 돼지나 양의 몸속에서 성장시키는 기술이며, 이론적으로는 이식을 받을 이의 유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술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지금의 장기부족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장기를 얻기 위한 동물을 만들고 또 이들을 죽여 장기를 얻는 일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2015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런 종류의 연구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연구비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할 바 있다.

가트너는 자신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이 배반포 보

완법 기술에 대한 논쟁이 사실 인공 장기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수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는 온갖 별난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오가노이드 기술 외에도,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장기를 키우는 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해 장기를 제작하는 기술 등의 접근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사 이런 기술로 인간의 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정말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가트너는 한 가지 끔찍한 예를 들어 이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인간 조직을 가장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심장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을 복제한 다음 심장을 꺼내는 것”인 셈이다. 사실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충분한 돈과 윤리적 문제만 없다면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방향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요...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 기술은 우리 인간이 만들고 싶어 하는 사회의 모습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 배반포 보완법을 한 번 자세히 알

아보자.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동물에 인간의 세포나 조직을 이식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흔히 행해지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 기술은 신화 속 동물의 이름을 따 ‘종간 키메라’(interspecies chimera)라 불리며, 과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 분야의 가장 커다란 발전은 지난 2010년 유전학자 히로미츠 나카우치가 이끄는 일본의 연구팀이 스스로는 췌장을 만들 수 없는 생쥐를 만들면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이 생쥐가 전-배아(pre-embryo)상태(이때는 배반포 상태라고도 불린다)일 때, 다른 쥐의 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했다. 만능줄기세포는 어떤 장기로도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이며, 생쥐에 주입된 이 만능 줄기세포는 스스로 부족한 장기, 곧 췌장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이 생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전-배아 상태에 주입된 인간의 줄기세포가 인간의 정자나 난자를 만들게 되고 인간과 돼지의 잡종이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는 인간의 세포가 동물의 뇌와 결합해 마치 “인간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동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발전은 지난 2010년 유전학자 히로미츠 나카우치가 이끄는 일본의 연구팀이 스스로는 췌장을 만들 수 없는 생쥐를 만들면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장벽에 의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줄기세포가 원래 목적했던 장기로만 발달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도덕적 논란은 이렇게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두고 벌어질 것이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018년도 강도사 고시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본 교단 산하 교회와 응시자 여러분 배후에 충만 하심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강도사 고시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주후 2018년 9월 6일(목) 오전 9:30
2.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982-2520

3. 응시자격: 총신졸업(미국, 한국) M.Div 학위 소지자
4. 고시과목
 - (1)제출과목: ① 논문: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정체성을 논하라(A4, 30매 이상)
② 주해: 롬 1:1-32 (A4, 10매 이상)
③ 설교: 롬 13:11-14 (A4, 6매 이상)
 - (2) 필답과목: ① 조직신학 ② 헌법, 정치 ③ 교회사
 - (3) 면접 및 제출설교문 중에서 설교 10분

5. 제출서류
 - (1) 고시청원서 (2) 졸업증명서 (3) 노회장 추천서
 - (4) 이력서(여권사진 2매) (5) 응시료 \$500
6. 기타
 - (1) 원서구입 및 제반편의는 서기의 지도를 받으세요
 - (2) 제출처: 고시부 서기 한상흠 목사
118 Ackerman St, Maywood NJ 07607
 - (3) 제출기간: 2018년 8월 15일 마감
 - (4) 참고사항: 분실, 규격 미비건은 무효처리됨
 - (5) 문의전화: 고시부장: 정익수 목사 (718)445-0362
서 기: 한상흠 목사 (201)952-5718

주후 2018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총 회 장: 강유남 목사
고시부장: 정익수 목사
서 기: 한상흠 목사

영적, 감정적, 심리적, 지적으로 자기인식하도록

(1면에서 계속)

자기인식이 먼저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을 목적지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리더는 먼저 자기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인식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그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쉽게 잃어버린다. 리더는 자기인식을 위해 주변에 자신을 비취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직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리더는 자기인식을 위해 불안감을 떨쳐내야 한다. 불안감은 잘못된 리더십을 만든다. 불안감은 리더의 자신감을 갉아 먹으며 리더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힘겹게 만든다. 무엇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자기인식을 위해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거리에 둘러싸여 바쁜 일정에 쫓기며 살아가는 리더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피드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차세대 리더가 먼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하는 목회자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십자가

리더 멘토링의 핵심은 십자가다. 사실 대부분의 차세대 리더는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많은 책임과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왔기에,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리더로 성장해온 것이다.

차세대 리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

은 리더가 될 것이다. 만약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가 능력의 핵심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멘토링을 하는 목회자는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차세대 리더가 보이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일곱 가지 공격을 피하게 하라

마귀는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곱 가지 주된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교만을 사용한다. 리더가 교만하게 자신을 세우도록 하고, 자신이 일군 업적으로 스스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욕욕이다. 마귀는 리더가 영적인 부담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음주나 포르노를 통한 현실 도피나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을 사용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영적 과욕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영적으로 뛰어나게 보이도록 리더가 과욕을 부리게 한다. 네 번째는 영적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다. 마귀는 리더가 영적 권력을 가지고자 리더의 자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피곤함과 나태함이다. 육체와 영혼이 기본적인 영적 훈련조차 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풍족한 환경이다. 리더에게 풍족한 자원과 기회를 주어 내면의 성숙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만든다.

일곱 번째는 미지근함이다. 리더를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열정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목회자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차세대 리더에게 마귀의 일곱 가지 공격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가 이러한 공격들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깨워야 한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3분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30년 말을 잘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비극이다. 불행중 불행이다. 우리는 3달 동안, 아니 30년 동안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행동으로 3분 만에 인정받으며 살려고 노력하자.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속에 내재된 인격 크레딧이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훌쩍인다. 워낙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 논리적으로 맞추는 데도 머리가 비상하다. 여기에 안 넘어가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다. 그런데도 문제는 오래 상종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남은 있으나 신의는 없다. 하기가 도적놈도 친구가 있고, 사기꾼도 까리끼리는 의리가 있듯이 그런류의 상종은, 그리고 사이비 의리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속고 또 속아왔기에 더 이상 안 속겠다는 태도다. 그런데 다시 반복 강조하지만, 말은 너무 잘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말 누구나 몇번씩은 훌쩍한 경험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말 잘하는 자와, 잘 말하는 자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이념 장사꾼들이나, 직업 사기꾼들, 개 중에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말 잘하는가? 그중에 우리의 뼈아픈 경험은 광우병 촛불 시위가 아닌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짜 맞춘 가짜 논리로 국민을 감동시켰는가?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죄의식이 없다. 회개가 없다. 양심이 없다. 문자 그대로 3무 인생이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 영향, 그런 것 상관없다. 들롱 나도 상관없다.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 선동에 성공했으면 승리의 개신가를 부르며, 스스로 영웅시 한다. 오후, 통제라! 쓰레기 심장, 지옥 본적 줄기 세포가 즐기는 묘수다. 천재적 선동 기획이다. 오늘의 비극이 시궁창 언론, 사기 통계학이다. 그리고 이벤트 정치, 영화 정치, 패션 정치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뇌 언론에 중독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기획물이다. 뒤통수 맞고 정신 차려보니, 이미 수족은 마비되어 버렸다. 혼자 아무리 소리쳐 봤자, 스피커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와인 잔 들고 축배를 즐기지 말아라. 역사의 심판이 있고, 진리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성공했는가? 반대자를 다 처형한다고 태평 만월을 보냈는가? 우주의 질서는 소멸 되지 않는다는 것. 공산주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행동을 봐야 한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 하다.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 잘하며 살아온 30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시 반복 말한다. 30년 말 잘하며 세련되게 설득했는데, 3분 행동한 사람보다 설득력이 약하다니... 세상에 이런 피곤한 인생, 비극의 주인공이여! 그래서 최후의 비상수단이 그 구두쇠가 밥 사주면서 거짓말하는 것, 공짜 좋아하는 거지 근성에 딱 먹혀 들어가니... 옳고 그름 상관없이 공짜 밥값은, 고개 끄떡거리 주는 것이 막힌 선견자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이지요.

3분 행동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니 힘들겠지만... 그러나 풋대가 인생의 발자취가 되기에... 서기관 교육과는 다른 예수님의 진리만이, 오직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기에도... 진리만이 소망이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다.

인공장기 연구와 실용화, 과연 어디까지...?

(2면에서 계속)

만약 인간의 체장이나 간이 돼지의 장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돼지의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돼지를 그제 인간을 위한 장기 공장으로 만드는 데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 적어도 동물권 지지자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윤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인류가 돼지를 그제 식량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의학적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크게 반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매일 엄청난 양의 동물을 식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들을 장기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더 윤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쇼의 말이다.

물론 크게 보면, 돼지를 장기 공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상황들 또한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가트너가 말한 것처럼 각각의 상황들은 나름의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진화적으로 더 가까운 원숭이나 침팬지가 인간의 장기를 기르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영장류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쇼(Shaw)와 같이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들은 뇌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만을 비활성화 시켜 그제 "뇌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쇼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뇌가 없는 인체 혹은 영장류의 몸을 장기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의식이 없으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실제로 두 명의 학자는 인공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뇌 없는 인간을 인공장기 공장으로 만드는 대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지금 미친 소리로 들리는 아이디어가 30년 뒤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한때 시험관 아기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여겼지

만, 이제는 누구도 시험관 아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2015년 가을 배반포 보완법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먼저 조사하기로 결정했던 NIH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6년 8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구비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는 21,000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인간-동물 키메라를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 몇몇 댓글은 이 연구가 "비도덕적"이며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구역질이 난다"고 썼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제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정부의 연구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윤리학자들은 위의 댓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대중의 감정적 대응이 이 새로운 인공장기 기술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될 것이라 말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인류가 이런 인공장기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걱정을 듣고 이에 대해 진정한, 사려 깊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조나단 키멜만은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험실을 떠나 실제 병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며, 실제 현실에서 이 기술이 적용될 때는 처음의 아이디어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연구가 끝난 뒤가 아니라, 과학적 활동이 이뤄지는 그 시점 혹은 그 기술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대중과 교감을 이룰 필요가 있다.

철학자인 쇼는 적어도 한동안은 이 고가의 새로운 인공장기가 부유한 이들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그는 이런 논쟁을 접어두고 당장의 장기 기증을 늘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은 장기 기증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쁨 |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꼭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리는
사람

마음이 그대로 인생이 된다!
주님을 나의 찬양이 되게 하라!



마음이 그대로 인생이 된다
주님을 나의 찬양이 되게 하라!



두란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단 한가지는 사람의 속 속 속 사람입니다.

LA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짹 짹 짹'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지 엿
제 같은데 며칠 후엔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의하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TV 시청자 수는 32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월드컵을 시청했다는 말입니

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결승전은 6억9,500만이 시청했으며, 브라질 월드컵 누적 시청자 수는 3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청자 관람 수는 돈으로 연결됩니다. 각 대륙 예선전을 뚫고 대회 본선에 참가

하는 32개국 팀들에게 돌아갈 총 상금이 4억 달러(약4,500억원)이고, 한국 대표 팀이 러시아 월드컵 출전으로 받는 상금이 최소 950만 달러라고 하니... 16강에 진출한 팀이나 우승한 팀에게 돌아갈 상금과 보상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월드컵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랭킹 57위인 한국이 독일(1위), 멕시코(15위), 그리고 스웨덴(24위)과 함께 한 조가 되어 일명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선수들의 부상 소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 편성과 '출 부상'에 시달리는 한국 대표 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아무도 한국 팀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신들, 미국 CBS 언론, 그리고 스포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 팀에 대하여 '3전 전패, 16강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하며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한국팀의 16강 진출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할 때 확률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과 약조건을 갖춘 '언더 독'(underdog)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포기하는 금물입니다. 끝까지 해보아야 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합니다.

독일에게 첫 번째 우승을 안겨준 독일 축구의 전설, 제프 헤르베르거가(Sepp Herberger)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공은 둥글다. 경기는 90분 동안 계속된다. 그 외 모든 것은 그저 이론이다" (The

ball is round, the game lasts ninety minutes, and everything else is just theory).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시합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만큼 실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더 독'(underdog), 즉 약자 팀을 응원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언더 독'이었던 한국 축구팀이 4강을 이루어 신데렐라 스토리가 주인공이 되는 해프닝이 될 바랍시다.

월드컵은 명실공이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나라가 우

승을 했는지 기억에서 사라지는, 4년마다 열리는 축구 시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응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 열악한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언더 독'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응원을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짹 짹 짹' '언더 독 팀들, 짹 짹 짹'

푸/른/초/장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은 과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목을 내놓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총명한 영적 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2, 브리스가 부부는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이 부부는 추방령을 받고 로마를 떠난 부부입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AD45년)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은 유대인은 약2만5천명 정도였

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가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 짐작하고 있으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바울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부부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하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바울은 이 부부를 로마교회에 소개할 때 뵈뵈 다음으로 소개했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최고의 찬사를 했을까요?

사실은 뵈뵈보다 더 먼저 소개해

를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갈 때 그를 존경하던 성도들이 쫓아감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는 돈이 되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4번 아내 이름을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신앙이 앞섰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름을 먼저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니컬러스 때 몇 번째로 기록하실까요?

(2)이 부부는 신앙의 수준이 탁월했습니다.

행18:24-26,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있었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에 요한의 세례만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이 부부는 참으로 영적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이 부부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거주하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고전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서는 바울이 3차전도 여행 중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추방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추방령이 끝나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네로 황제 때인 AD57년경에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로마로 돌아온 지 2년여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까?

(5면으로 계속)

주를 위해 목까지 드린 사람 (로마서 16장 3-4절)

9.11사태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알 카에다의 비행기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근무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비규환을 이루며 층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은 곧 무너질 상황인데 소방서 대원들은 무거운 소화기 통을 짊어지고 목욕탕 빌딩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급히 내려오고, 소방서 대원들은 죽음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순교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장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결국 올라간 소방서 대원들은 모두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산산히 허공에 흩뿌려야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과연 무너져 내리는 빌딩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과연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그 정도의 헌신을 드릴 수 있을 까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도 목숨을 드렸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1989년도 정명훈 선생님이 약관 36세에 세계적 오페라 극장인 볼란서의 바스티유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오페라로

베를리오즈의 '트로이'를 연주했습니다. 장장 4시간 30분이나 되는 대작입니다. 그 첫 연주로 정 선생님이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주 도중에 갑자기 우두독하면서 무대를 설치한 가로지른 커다란 기둥이 부러지려고 가운데가 굽이 가면서 굉음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연주자들의 머리위로 떨어졌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장치가 7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 높이에서 가로지른 커다란 기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내린다면 연주는 멈출 것이고, 연주자들 중에 다치거나 혹 변이 일어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정 선생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무대는 그대로 버

까지 드린 사람"이란 말씀으로 전할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티어주어 연주하는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15분 동안의 기립박수를 받는 놀라운 성공적인 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을 위해 목

까지 드린 사람"이란 말씀으로 전할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 브리스가 부부는 목까지 드렸습니다.

본문 16:3-5,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 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어떻게 헌신했으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했을까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말씀은, 이 부부의 가장 귀한 것, 마지막 진액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울을 위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고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말합니다. 그 추방의 원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싸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해방노예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출신입니다.

그래서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 고린도로 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굴라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군대의 필수품인 천막제조가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들이 로마에서 고린도에 온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음을 기록하고

야 되는데 뵈뵈는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여 집사이였기에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빈도가 더 많이 기록되고 있음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에 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함께 하였고, 수리아로 떠나자 또 동행하였습니다. 행 18: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천막 만드는 직업을 포기하고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이태리의 깊은 계곡에 마을을 형성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수도사가 영적 수행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최근 교회관련 통계 기사를 보면 북미주 4000개 교회 가운데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에 가깝도록 증가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비자 정책이 이민교회의 위기로 나타났음을 말한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의 미국교회 출석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세가 아닌, 1세 가운데서도 미국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교회가 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이끌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존 이민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영적 도피 행위와 같다는 설명이다.

미국교회와 익명성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면 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교회를 출석하면서 자신을 커뮤니티 안에서 특별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따름이다. 왜 자신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다양한 사정들은 있겠지만, 한국정서로 표현되어지는 묘한 관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자랑스러운 꿈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과거에 묶인 자존감의 상실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가정과 유학생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떠나올 때, 성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생각들이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자신을 공동체 속에 오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다. 한국정서에 필요 적절한 학연과 지연 등의 관계성속에 드러내고 싶는데, 그럴만한 자랑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나 유학을 오는 학생들 가운데 겨우 2%가 본래 목표대로 정착하고 성공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생각만큼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터인데, 옛적의 그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자기를 안 드러내고 감추고 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가나안 교인들은 원대복귀
요즘 인터넷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차원의 탈 교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음을 본다. 교회라는 구조 속으로 꼭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저 건물일 따름이라는 생각을 품고 움직여 교회를 향하는 길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다. 이른바 유형의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러지는 예배와 교제를 내려놓고, 가정에서 혹은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감으로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동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할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머니와 같은 지역교회 안에 머물 때에, 그가 가진 열정과 의지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방향과 속도
세 가지 부류의 교회와 공동체에서 멀어진 이들의 이야기를 적어보았다. 미국교회를 출석하며 자신을 감추는 이들, 삶의 목표와 목적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이들, 기존의 교회와의 불화함으로 가나안 교인이 된 이들을 생각해 보았다. 공동체와 교회에서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한 상처로 자신을 감추고 숨어 있거나 혹은 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6.25가 곧 다가오는데 8.15해방 후에 북한 괴뢰 집단인 김일성이 어떻게 남침하게 되어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시티에서 이희은

A: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6.25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개혁신앙 43호의 부록인 "내가 체험한 6.25사건"에 대한 김명도 목사의 글을 참고하여 오늘의 질문에 답변 드리하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고 일본은 한반도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물러가자 북한에서는 해방과 함께 9월초에 원산 항구를 통하여 당시 33세의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소련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연일 거리로 쏟아 나오던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는새 붉은 완장을 찬 공산당 홍위대로 변신하여 공산당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시민, 지식인, 종교인은 모조리 체포되

주한미군 철수 전쟁 통해 과거에 못 이룬 남한공산화 꿈꿔

어 감옥에 보내졌거나 숙청되어 죽었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은 부녀자들을 농락하고 집안의 물건을 다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같은 시기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6일 미군이 진주하여 핫지(John R. Hodge) 중장의 미군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에서도 혼란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산분자인 박헌영 일파의 남로당이 나라를 어지럽혀 도처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암살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45년 10월 9일 미국에서 오래 동안 기거하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였고 혼란한 나라 정세를 보고 이 박사는 미국과 유엔에 호소하여 남북한 동시 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만들고 정부를 수립할 뜻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결국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거를 위해 임박을 요청했으나 북측의 거절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5월에 총선이 실시되어 국회가 조직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북한은 남한과 함께 부르던 애국가를 폐지하고 태극기를 금지하고 인공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군을 북한에서 철수하도록 종용하여 소련군은 일단 압록강 북편으로 철수하였고 군비를 계속 증강하여 전쟁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소련군이 철수했으니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1949년에 철수하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신생 대한민국에 국방을 위한 아무런 무기도 남겨주지 않은 채 철수했습니다. 김일성은 비밀리에 남침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3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하여 8월 15일을 통일 조선의 경축일로 삼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1950년 3월 소련에 가서 당시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 가서는 당시 주석인 주은래 수상과 중공군 사령관인 모택동의 허락을 받았고,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남한의 국민들 20만명이 봉기할 것이라고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박헌영의 말을 듣고 결국 1950년 6월 25일에 그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장관은 미국의 보호 평화선을 설정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대마도로 경계선을 만들어 필리핀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남침하는 빌미를 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북한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 다시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침 전쟁을 통해 과거에 못 이룬 남한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려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동조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열간이 한국 정치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의 익명성과 교회 공동체
- 미국교회, 한국정서, 가나안(?) 성도-

음과 같다. 설교가 모국어로 전해져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영어설교에 대한 친숙함이 넘쳐난 은혜를 누릴 정도로 쉽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교회를 찾는 이유가 한인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말한다. 세 번째는 한인교회의 예배에 비해 순서들이 상당히 짧고 간결하다는 것이다. 설교가 연설도 아닌데, 짧을수록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짧아서 좋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헌금에 대한 책임의 자유로움을 든다. 한인교회들은 대개 짧은 역사와 열악한 교회의 형편과 사정들로 인해 성도들이 유무형의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미국교회는 긴 역사와 더불어 헌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인교회의 좁은 지역성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잠시 머물러 신앙의 숨고르기를 하기에 적합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미국교회를 출석하는 1세대 가운데 실제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나홀로 신앙생활'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교회라는 설명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짧고 유한한 인생을 지나면서 좀 더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든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사명과 책임에 대해 적절한 종교행위와 익명성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체와 한국정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한인 인구 조사를 해보면, 한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어서 그 분들의 숫자와 전체 한인인구의 숫자가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교회 교인들의 숫자와 실제 인구조사에 의해 나타난 한인들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 전체 총 한인인구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도 교회들의 등록교인수와 총인구를 비교해볼 때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

최근, 미국양로원에 게시는 한인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다. 예전에 아주 가끔 한인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데, 연세가 여든이 되어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나온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말한 내용들의 관박이다. 처음 유학 왔을 때의 화려한 꿈들과 소위 당시 이민자들의 고통스런 여봉남정(?)에 비해서 모든 것이 순탄했던 시기의 자랑을 말한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건강 타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삶에 못다 이룬 회한이 자식들의 성공으로 가리움 하려는 듯하다.

더불어 철저히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며 자식들을 교육시키다보니, 자녀들 대부분이 전문직에서 성공한 듯 보이나, 부모에게도 미국적인 시스템 속에서 책임과 의무만 행하는 그런 자녀의 존재로 비춰진다. 자녀들이 그렇다보니,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세대와의 언어도 점점 더 폐쇄되어지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참 아쉬운 것은 오랜 시간 그렇게 미국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감추던 듯 살다보니, 그 노부부에게는 평생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향한 그런 추억의 이야기거리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정직하게 드러낼 것

또 다른 어떤 부부는 이민 와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부인이 위암에 걸려서 한국을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 그들의 고백이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민 와서 고생한 게 뭐냐? 열심히 산 게 대체 뭐냐? 삶이 전부가 고통이었다고 말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영혼 없는 몸은 그저 몸통아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한데도, 얼마나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지 모른다. 하다못해 한국을 방문할 때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는 손가락에 채우고 가겠다고 빌려서라도 체면을 지키려하는 것이다. 실제 이민

를 성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한인교회의 신앙형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한인교회는 너무 예배를 강조하고 교회에 사람들을 자주 묶어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새벽기도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분도 받을 수 없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싫더라는 것이다. 또한 주일성수를 너무 강조한다. 주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자식에 더 피곤한 하루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심일조와 헌금을 강조해서 물질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교회의 수평적 리더십에 의한 역할 분담이 절절함을 비해서 지나치게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사 중심'으로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해보자. 과연 이것이 적절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인가?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새벽에는 꼭 주무시도록 전혀 부담주지 않는 교회, 주일날 한번 소풍하듯 들렀다가 자기생활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교회, 심일조와 헌금은 돈 얘기가 나 절대 하지 않는 교회, 심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 하였는데,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도 부담 안주면 되는 교회, 담임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할 말은 다하는 교회.

과연 이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한 그런 모습인가? 이런 교회는 존재 이유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저 친목 공동체에 불과하지 않은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도 강권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존재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하여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신이 주장하거나 실천할 의로운 것은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가나안 교인들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원대복귀 해야 한다. 공

지 않도록 다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세게 될 것이다. 감추고, 숨고, 피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책망거리일 따름이다.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거리고 남기지 못할 것이다.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속도를 내어야 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장차 받을 큰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4면에서 계속>
롬 16장4-5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고 이 일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하고,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로마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어 성도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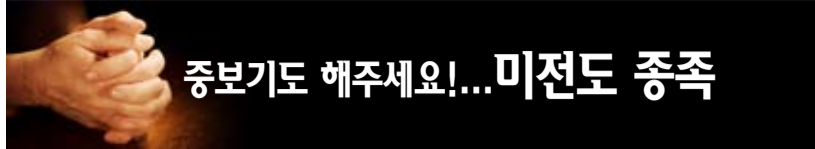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캠프나 학원에 보내는 길로 여름방학 부모 노릇이 끝나는 게 아니다. 캠프가 끝나면 가족여행을 떠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여름방학 중 가족여행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행사로, 학교 수업의 토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도 어렵다.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 부모나 같은 마음이다. 여름방학,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뒤에는 부모들의 한숨이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여행지를 찾으면 된다.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첫째, 가족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고 둘째,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길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목적지를 향한 기대감은 우리네 인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을 위해 목까지 드린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한다"고 하고,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로마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어 성도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 여정과 닮아 있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놀랍게 의젓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 계획을 짜야한다. 계획 짜기에는 시간관리 및 꼭 해야 할 일 관리가 필요하다. 방학 기간의 기성과 취침, 학업과 휴식, 운동과 사회 경험 등의 시간계획을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다.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를 세우고, 운동을 통해 팀워크나 팀빌딩 스킬을 배우고, 여행을 통해 역사, 사회, 지리를 배우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리더십 스킬을 배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졌으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캘린더를 꺼내놓고 '중요한 이벤트' 스케줄을 파악하는 것

진 브리스길라 카타콤베가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삶인데, 이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브리스가 부부처럼 주님께 목숨까지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hiesadiroma@daum.net

이런 바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누리는 여름방학이 되기를 기도하자.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하자라(HAZARA)



하자라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중부에 살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많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은 대부분 발루치스탄 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퀘타(Quetta)시 주변에 살고 있다. 하자라인들은 몽골인들의 후예로 생각된다.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징기스칸(Genghis Khan)의 침략 때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었다. 이들은 몽골인 같은 신체적 특징과 언어로 인해 이 지역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종족 집단으로 구별되어져 왔다. 하자라기어(Hazaragi)라고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이란 계통의 언어이며 몽골어의 단어를 많이 차용해 사용한다. 많은 하자라인들이 제2의 언어로 다리 페르시아어(Dari Persian)를 사용한다. 이들의 본토인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반란으로 혼란했다. 1800년대 반란이 실패한 후 일부 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으로 도피해 정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인 내전을 피해 도피한 다른 하자라인들이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하자라인들은 양, 염소, 말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이다. 오늘날은 혼합 곡물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주요 작물은 밀과 보리이며 다양한 과일도 재배한다. 많은 남자들이 구두수선공, 집꾼, 물을 나르는 사람 혹은 남마주이로 일한다. 천한 일도 기꺼이 하는 이들의 자세는 자신들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들이 차별대우 받고 경멸을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좋게 평가되기도 한다.

하자라인 남자들은 험령한 바지에 어울리는 무릎까지 늘어진 면 셔츠를 입으며 수놓은 둥근 모자나 티베안을 쓴다. 여자들은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밝은 색의 쇼울(shawl)로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다.

신앙

하자라인의 결혼식은 전통 이슬람 형식을 따른다. 대부분이 그들 공동체 내에서 거의 하자라인들끼리만 결혼한다. 친사촌 간의 결혼이 선호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보통 15살에 이르러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오직 남자 아이들에게만 정식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또한 겨우 1년 혹은 2년에 불과하다. 교육의 중심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며 시 암송이 교육의 대부분이다. 하자라인들의 문맹율은 상당히 높다.

비록 사납고 호전적인 민족이란 악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 관대함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자라 여인들은 다른 무슬림 집단에서보다 많은 사회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정통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다수의 파키스탄인과는 달리, 하자라인들은 시아파 이슬람(Shi'ite Islam)을 따른다. 따라서 가장 엄격한 무슬림 관습은 피하지만 라마단(람잔) 기간의 금식과 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의 기도하는 것 등의 신앙에는 헌신적이다.

사이드(Sayyids, 유목민의 장로, 모하메드의 직계자손에 대한 존칭)라고 불리는 종교 권위자들은 하자라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구실적 역할을 한다. 사이드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예들이라는 주장을 한다. 원래 그들은 아랍인들이나, 파키스탄의 사이드들은 하자라인들과의 통혼으로 신체적인 외형과 문화에 있어서 하자라인들과 비슷하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성한 자질(sacred

qualities)을 사용하며 그들의 기도와 종에는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진다.

필요한 것들

하자라인들은 다른 종족 집단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들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종족이며 농병, 문동병, 결핵이 만연하여 건강상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에게 상당한 영적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가운데 심지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성경과 '예수' 영화도 하자라기에 많이 번역되지 않다. 다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연방대법원, 제빵업자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했다. 특



개인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대(對)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주(州)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되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된 것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법적인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 필립스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립스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그는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미 가석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주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이라 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면서 "주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완벽히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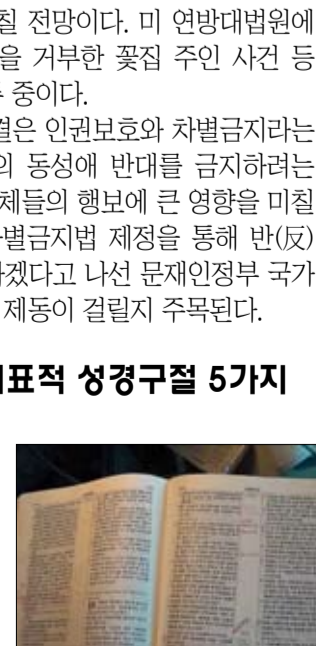
동성 커플을 대변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대법원이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에는 동성커플의 꽃 장식을 거부한 꽃집 주인 사건 등 유사소송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한편 미국의 이번 판결은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한국내 친(親)동성애 단체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반(反)동성애 발언마저 처벌하겠다고 나선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 성경구절 5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운동선수와 수험생,



때로는 주일·심방 예배 참석자들에게 종종 전해지는 격려 말씀이다. 이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언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멀티 플레이어' 같은 구절로 폄하된다.

저술가이자 선교사,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는 브라이언 오르메 목사는 이에 대해 "(자신을 위한) 성취를 위해 잘못된 인용된 구절"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최근 미국의 인터넷 기독교 잡지인 '처치 리더스'에 '가장 잘못된 사용하고 있는 성경구절 5가지'란 글을 기고하고 "이 구절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라며 "본문 맥락상 절망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라는 신자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렘29:11)의 경우, '평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sperity(번영)로 번역되는데,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복을 빌어주는 데 인용된다. 이에 대해 오르메 목사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다루고 있다"면서 "돈이나 물질적 축복보다는 영육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는 구절도 작은 기도모임 등에서 종종 사용된다. 하지만 기도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다. 분장을 겪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오르메 목사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실족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두세 사람뿐 아니라 한 명이든 천 명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와 관련, 오르메 목사는 "이 구절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서 "선을 이루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선'은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구적인 순종이라고 설명했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29:18). 이 구절에서 목사는 비전(Vision, Revelation)을 뜻하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종종 커다란 꿈을 가져야 한다고 이 구절을 인용한다. 오르메 목사의 해석은 이렇다. "하나님의 계시(말씀)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오르메 목사는 "성경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라며 "성경구절이 잘못된 맥락에서 사용될 때 칼날 대신 칼 손잡이로 싸우는 것과 같다"며 올바른 성경 이해와 적용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위대한 여정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특히 70년간 유지돼 온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마당에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도 곧 종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조만간

상호 대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방문을 요청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나도 평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로 다짐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라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노력이 적지 않았으며 두 정상에게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오찬, 공동성명 서명식을 갖는 것으로 140분간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북제재 당분간 유지...무엇보다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당분간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후 4시15분쯤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공동성명의문은) 포괄적 합의문이고 이제 이야기 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실한 대화를 나눴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6·25 한국전쟁은 언급하며 "전쟁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곧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보장과 막대한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 편입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 (항후) 상업을 포용하고 또 전 세계와 통합된다면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도 없었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번영과 함께 (북한에는) 안전·안보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며 "여기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미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했다는 김 위원장의 말도 전했다. 그는 "오늘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북한에서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했다고 말했다"며 "이건 굉장한 큰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을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미국내 평가... "더 모호한 약속 되풀이"

미국 언론들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놴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줄곧 요구해 왔던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FP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면서도 "CVID 표현은 없었다. 더 모호한 약속을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CNN방송 역시 "김 위원장의 서명식 발언은 지난 4월 한국에서의 판문점 선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디테일 부재를 언급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CNN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어는 놀랄 만큼 약하다. 솔직히 이것보다는 더 강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확고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이 문서는 구체적 내용이나 시한이 없는 개요(outline)"라며 "이행을 위해 몇 년이 걸릴 수도, 걸림돌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과감한 변화를 약속하긴 했지만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코브릭 국제위기그룹 수석고문은 CNBC 인터뷰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보기에만 그럴듯한 정치적 합의에 그치는 것"이라며 "세부 사항 합의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아니라 5년은 걸릴 것이기에 분명한 단계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언론들은 회담 진행 내내 "회담은 환상적이었다. 김 위원장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트럼프 대통령), "세계는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김정은) 등 두 정상의 발언을 속보로 띄우며 집중 조명했다. 회담 주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기도 했다.

CNN은 '과거를 뒤로하고' '역사적 악수' 등의 제목 아래 '월요일 밤, 역사가 만들어졌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났다'며 북·미 정상이 반세기 넘는 구원(舊怨)을 풀고 함께 차리던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NYT 역시 두 정상의 악수 장면을 전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 장을 연, 믿을 수 없는 관계 회복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CNN 에디터 크리스 실리자는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쇼맨십 등) 트럼프스러움을 억제했다(Trump-ness)"며 "두 사람 모두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길 정말로 원했다"고 분석했다. WP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지도자와 가장 고립되고 억압적인 지도자 사이의 전례 없는 인사말을 보면 이들 두 사람이 불과 몇 달 전 험한 위협과 모욕을 교환한 사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우리에게 큰 기회...비용 가까이 부담"

싱가포르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세



계적 이벤트인 회담 개최만으로도 마이스(MICE) 산업을 국가 성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세기적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이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국제기관이나 기업 등이 정보 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전시, 이벤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마이스산업의 최강자로 꼽힌다.

리센통 싱가포르 총리는 10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부담하는 비용이 2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61억원)에 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리 총리가 "우리는 이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겠다. 이번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중 하나인 GSS(The Great Singapore Sale·6월 8일-8월 12일)와 겹치는 바람에 교통과 숙박 문제를 비롯해 현지인과 관광객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싱가포르는 북·미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유지 없이 방문이 가능한 점이나 2015년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한 실적 등과 함께 마이스산업 일류 국가다운 시설과 경험 면에서 적합성을 부각시켰다.

성직, 성직자

성직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으로, 세속적인 일과 구분된다. 성직자는 소명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응하고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중요성을 자각하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직은 교회의 타락을 재는 척도이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교회의 타락은 불을 보는 분명한 일이다. 어느 시대보다 더욱 영적으로 타락했던 중세교회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성직을 임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이다. 교회를 위해 사역할 자들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성직을 맡기는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중요한 일을, 교회가 아닌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행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예를 들어, 공식적인 담임목사를 결정하는 일을 교인의 공동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그 도시의 시장이나 동네 유지에게 맡기는 우스꽝스런 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까지 중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초창기부터 황제는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황제의 권한으로 교회가 자유를 얻었다.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황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힘을 유지한 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황제와 교회의 실권자인 교황 사이의 힘의 대결 구도가 낡는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황제는 교황을 억누르려 하거나, 반대로 황제의 힘이 교회에 미치지 못하도록 황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로가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였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성로마제국의 탄생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로마가톨릭이 형성될 때에 교황은 황제의 힘을 전적으로 빌려왔다. 이 과정에서 교황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성로마 황제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교회가 타락하여, 성직과 성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한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서임권 투쟁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서임권, 즉 교황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의미를 무엇인가? 황제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로 부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결정하는 영적인 일이 세속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교황과 황제 사이에 미묘하고 복잡한 대립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그 갈등이 비화되어 '서임권 투쟁'으로 번져갔다.

그 당시 교회는 봉건제로 인하여 통일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였던 유럽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라는 두 체제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임권의 대상이 되는 성직자들은 교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동시에 교황으로부터 봉토와 직책에 따른 세속 사법권을 받은 영주로서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했다.

레고리 7세(Gregory VII, 1015-1085)와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0-1106)사이에서 생긴 사건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전에 하인리히 3세(Heinrich III, 1017-1056)를 중심으로 일

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트프리트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 결과 그의 아내 베아트리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권의 강화를 동반한 교회 개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오랜 시간동안 가슴에 품

그레고리 7세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 사회 전체를 뒤 흔들리게 되었다. 그의 개혁은 교회 안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황제를 향해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제에게 주어졌던 서임권을 철폐한 것이다. 그는 교황에게 매수하여 직위를 얻은 황제의 고문 주교 5명을 파문하였다. 나아가서 당시 주교와 수도원장이 세속군주로부터 서임을 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세속의 힘이 교회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자극을 받은 것은 황제 하인리히 4세였다. 그는 그레고리 7세에 맞서서, 교황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서 그러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그를 폐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폐위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폐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줄타기에 능한 영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교황의 편에 서게 되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전개되자,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의 권위가 자신의 위치 위로 부상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밀어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1077년 1월 그는 카놋사 성에 머물고 있던 그레고리 7세를 방문하였다.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파문을 풀어줄 것을 애원하기 위함이었다. 추운 겨울, 3일간 성문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교황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카놋사의 굴욕'이다. 한 때 교황을 서임하는 권한을 지녔던 황제에게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결국 하인리히 4세는 사면권을 얻어냈다. 굴욕을 당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또 하나의 반전이 이뤄졌다.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 7세에게 고개를 잠시 숙였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빌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이다.

성직, 성직자

치욕을 경험하면서 사면을 받은 하인리히 4세는 다시 그레고리 7세에게 강하게 저항하여, 아예 교황을 이단자로 몰아붙였다.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다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였다.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러나 정치력을 지녔던 하인리히 4세는 독일의 주교와 귀족들의 세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그레고리 7세의 교황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인 클레멘스 3세를 앉혔다. 이어서 하인리히 4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갔다. 그레고리 7세는 이탈리아 남부로 피신하였다가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하인리히 4세 역시 토스카나 가문의 베아트리체의 딸 마틸다에게 복수를 당하게 되었다.

중세시대에 세속과 교회에 생긴 갈등은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역사적 희극을 낳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직과 성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covent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성직은 교회 타락 재는 척도...서임권 투쟁, 성직매매 이뤄져 성직과 성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 놓치면 타락

독일 황제는 오래전부터 성직자의 소명 또는 기본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자신과 이해관계에 얽힌 자들을 주교로 서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하였다. 교황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충성을 다짐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전제되었다. 성직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나아가서 겸손한

어린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 하인리히 3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갖기 위한 정책을 펼친 노련한 인물이다. 어느 날 그는 교황으로부터 급한 도움을 요청받았는데, 토스카나 지역을 중심으로 교황과 강력한 힘을 지닌 공작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토스카나의 대영주 보니파초가 반교황파 세력에 의하여 암살을 당했다. 그의 아내 베

어떤 황제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힐데브란트라는 인물에게 접근하였다. 힐데브란트는 교회의 개혁을 단행하였던 클루니 수도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교황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명의 교황을 경험한 실력자였다. 그가 후에 교황에 오른 후 '서임권 투쟁'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그레고리 7세이다.

세속권력 대표하는 황제와 교회실권자 교황 사이의 힘 대결 그레고리7세와 하인리히4세의 갈등 '카놋사의 굴욕' 대표적

자세로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직자의 자리에 세속적인 마인드를 지닌 자들로 채워지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온갖 부패와 음모가 난무하는 곳으로 전락되자, 그레고리 7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회의 개혁을 단행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다. 황제의 손에 쥐어진 서임권을 반드시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레고리 7세

가장 대표적인 '서임권 투쟁'은 교황 그

아트리체는 고트프리트라는 강력한 힘을 지닌 공작과 재혼하게 되었고, 토스카나 가문을 재건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교황이 이 소식을 접하자 급히 하인리히 3세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고트프리트는 도망을 가고 베아트리체와 그의 딸 마틸다를 제외한 토스카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 후 하인리히 3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었다. 하인리히 4세가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때 도망갔던 고트프리트가 하인리히 4세를 방문하였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내와 딸을 구출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

카놋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가 단행한 교회 개혁은 매우 강력하였다. 무엇보다 세속의 힘에 의하여 성직과 성직자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은 것을 한탄하며, 반드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미 세속의 힘을 빌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성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며, 결혼한 자들에게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성경도 신앙 (53) 국가, 정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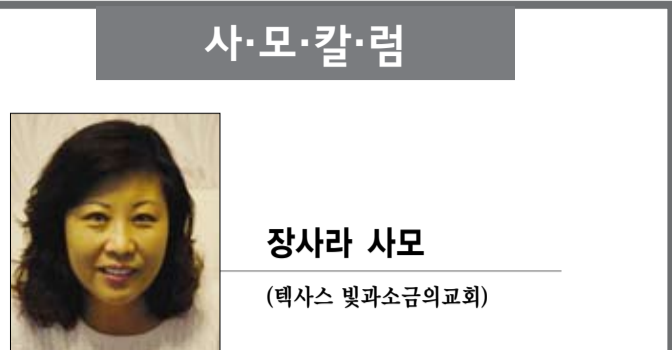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나) 법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경건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백성은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통치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섭리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고 탁월한 권세와 위엄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비록 선거를 통해 행정 관료를 뽑아왔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므로 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통치자는 악을 억제하고 모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선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언덕 위의 도시'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 위의 도시'를 할기 위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 이러한 도전은 주로 경제적인 이기주의와 종교적인 분리주의를 통해서 나타났고, 청교도들은 이러한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법적인 장치를 계속 마련하였다.
(마) 입법과 정치와 경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로서 인간의 죄성이 활동하게 되면 모든 경제적인 것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경제적인 이기주의로 벌어진 빈부차로 인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윈슬롭 일행은 1630년 8월 23일 찰스타운

(바) 종교적 분리주의자에 대해 방어하였다
믿음을 중시하는 '언덕 위의 도시'를 흐드는 다른 세력은 종교적인 분리주의였다. 윈슬롭 일행은 분리주의 운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할 것으로 믿어 철저히 대응하였다.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가 영국 교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를 주장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자, 보스턴의 청교도들은 사회 분열의 초래를 염려하여 1635년 그를 추방하였다. 윌법 폐지론자 앤 허친슨(Anne Hutchinson)이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내세워 성경중심의 가치관을 비판하자, 청교도들은 주관주의로 인해 그들이 세운 거룩한 정부가 붕괴될 것을 염려하여 1638년 그와 추종자들을 추방하였다.
에드워드 존슨(Edward Johnson)은 윌법 폐지론의 영향으로 보스턴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총만하고 학식은 학자보다는 전혀 학문이 없이 성령의 단순한 계시를 받아 말하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지적하면서 주관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1646년 로버트 차일즈(Robert Childs)가 교회 회원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로 '언덕 위의 도시'에 도전하자 그를 징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 분열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1650년 웨이커들이 뉴잉글랜드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반역과 치안 방해 등의 죄목을 씌워 징벌하였고, 1657년 플리머스에서 결성된 식민지연합(United Colony)이나 다음 해에 보스턴에서 모인 모임에서도 같은 이유로 웨이커와 다른 이단들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웨이커에 대하여 존 노턴(John Norton)은 "광신적인 열정에 따라 행동하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제재되지 않을 때에는 쇠사슬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조지 히스(George Hickeys)도 웨이커들을 "이성과 지성을 격정하고 감정에 복종시킴으로 생활의 통일성을 깨는 자들"이라고 정죄하면서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보스턴의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책망 받아야 할 악으로 정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더 좋은 고백

우리는 고백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란 죄의 고백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죄의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진실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을 다녀가셨다.
가나안에 파송되었던 열두 중에도 열 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한 고백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결과이다. 우리가 틀리게 생각을 하면 우리 틀리게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까지는 바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도록 주신 것이 아닐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골골하면 저절로 늘 아프다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원래 우리 몸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세월이 가고 늙으면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약하고 병들고 불완전한 몸에서 우리 온 생각을 집중하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사는 한 우리 고통과 걱정과 짜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리라.
그렇다. 우리의 고백이 스스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도 하리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의 이런 글을 읽었다. '아름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배달한 소포를 받고 사인해 주는 것과 같다...' 그렇다. 우리는 마귀가 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마야 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고 다 없애 버리셨음을 믿고 계속 우리도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고백을 하자.
그렇게 우리 오늘 더 좋은 고백을 하면 좋겠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 근심 없이 생겨도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아플 수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내 문제도 다 해결됐어' 이런 더 좋은 멋진 고백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지만 늘 맑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듯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화나고 조급하고 짜증스런 말들을 서슴없이 쏟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런 슬프고 고통스런 고백들을 다 나 버려도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다. 오히려 그냥 다 싸잡아 주님께 한 보따리 맡겨 버리면 우리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다. 가슴속에서 팔딱 뛰는 생명의 열기는 소유욕과 이기심의 짐착을 놓는 데서부터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알로가 아닌 진리가 가슴에 부딪힌 사람속에서 일어나는 삶이리라. 그런 사람은 아무 좋은 일이 없어도 혼자 기쁘고 혼자 행복한 삶을 사는 그야말로 일 없이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 영이 자라고 성장하면 거기에 자연히 기쁨과 감사가 쫓아오리라.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가 뿌린 고백의 씨앗의 열매인데 세착을 내는 진통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입술에 죄의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을 말하며 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땅에서 잘 돼서, 누구보다 더 잘해서가 아닌,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영이 행복한 아이가 되서 칭찬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길 원한다.
changsamo1020@gmail.com

'언덕 위의 도시' 건설에 방해되는 사상은 악으로 정죄 공동체 유익 위해 자신의 권리 희생해 공동체의 실현

든 백성이 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648년 작성된 '케임브리지 강령(Cambridge Platform)'은 통치자가 이단,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예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뉴잉글랜드에서 1660년에 작성된 '식민지 법률(Colonial Laws)'에는 정부가 악을 억제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윈슬롭의 사회관은 신분의 차이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보는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영향이기도 하다. 에임스는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라는 면에서 인간관계를 불평등 구조로 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상급자는 존경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하급자는 특히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를 떠서서는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윈슬롭은 "우리를 이 직분에 부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므로 우리가 법령을 내려 하나님을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분명하게 각인하신 것이며, 이를 경시하거나 범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하셨던 많은 예들에 의하여 그 정당함이 입증된

에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영국에서는 40살령만 있어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고, 칼빈의 제네바에서도 참정권의 기준은 경제력에 있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는 정치적인 업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주민들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택된 통치자에 의해 집행되었고 참정권의 기준은 경제력이나 학력 또는 연령이 아니라 신앙에 있었다. 윈슬롭 일행은 1630년 10월 19일 참정권을 교회 회원권을 가진 자에게 주도권 결정하였다. 이러한 혁명적인 초치로 인해서 성도들의 정치적인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 민주주의의 급진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라) '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고려했다
존 Knox(John Knox)는 교회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출교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고 개혁주의 교회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을 고백하면 언제나 회원권을 주었다. 그러나 윈슬롭 일행은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 도덕적 무후, 회심의 체험을 요구하였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도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그에게 교회 회원권을 줄

(Charlestown)에서 매사추세츠 정부로서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당시 뉴잉글랜드는 가족들을 짓느라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목수, 가구장이, 벽돌공, 톱질하는 사람과 지붕을 이는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가진 자의 폭리가 문제화 되었으므로 윈슬롭 일행은 최고 임금을 하루 2 실링으로 규정하는 공정가격제도를 뉴잉글랜드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가격은 당시 영국의 임금보다도 8배스 많은 것이었다. 또한 돈놀이를 금지시켰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 게으름, 불순종, 습관적인 음주, 알코올 중독, 신성모독, 거짓말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여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들은 공정가격이나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적된 남용죄로 간주하였다.
존 코튼은 가능한 비싸게 팔거나 싸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주장으로 당시 사재기와 독과점으로 치부하려던 로버트 킨(Robert Keayne)을 비판하였고, 매사추세츠 주는 킨에게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보스턴의 청교도들은 경제적 이기주의를 배격함으로써 공동체의 분해를 막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지적하면서 주관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1646년 로버트 차일즈(Robert Childs)가 교회 회원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로 '언덕 위의 도시'에 도전하자 그를 징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 분열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1650년 웨이커들이 뉴잉글랜드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반역과 치안 방해 등의 죄목을 씌워 징벌하였고, 1657년 플리머스에서 결성된 식민지연합(United Colony)이나 다음 해에 보스턴에서 모인 모임에서도 같은 이유로 웨이커와 다른 이단들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웨이커에 대하여 존 노턴(John Norton)은 "광신적인 열정에 따라 행동하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제재되지 않을 때에는 쇠사슬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조지 히스(George Hickeys)도 웨이커들을 "이성과 지성을 격정하고 감정에 복종시킴으로 생활의 통일성을 깨는 자들"이라고 정죄하면서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보스턴의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책망 받아야 할 악으로 정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516)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746-7577, Fax: (718)3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hc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성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34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Ó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14일 정기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1-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www.kcny.org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부 예배는 특별교) E-mail: hanj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진짜신자와 가짜신자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부흥사로 영국전역을 돌며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설교가 윌리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한번은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그의 설교를 듣기위해 구름 떴다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윌리엄의 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속죄의 은총에 대해 설교할 때, 여 기자가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빠져나갔지만, 끝까지 앉았던 채 일어나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 신사를 윌리엄은 만났

습니다. 알고보니 그분은 유명한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에 대해 신학생들에게 수업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십자가 없는 신학을 가르쳐왔습니 다. 그런데 오늘밤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은 두 뺨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순금과 도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으면 가짜신자가 되고, 가슴으로 체험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신학을 가르친 교수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기까지는 진짜신자가 아니 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속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 입

니다.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은 밝혀주는 역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인 것입니다. 가슴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진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빛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MBC 앵커출신으로, MBC 대표이사까지 지낸 분이 50대에 갑자기 그 좋은 회사의 CEO자리를 사표를 내고 미국에 건너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고생하며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어 나이에 서울 청담동에 Basic Church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십

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저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나는 CEO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설득해 보스턴으로 신학공부를 떠났습니다. 아! 정말이지 신학교 생활은 우리 부부에게 험난한 광야였습니다. 공부하러, 갓 시작된 이민교회를 섬기러,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입이 두 번씩 돌아가는가 하면 심장수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정말로 기쁘요?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그때, 난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 내가 폭탄주를 몇 잔 돌리느냐에 따라 그날 술집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이지 신나게 살았어. 어딜 가나 대환영을 받았지. 그런데 그건 진짜기쁨이 아니었어. 그건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니 이전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이후 아내는 나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부부는 결혼 20년 만에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 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진짜신자,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천국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십자가를 져도 주님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주님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 뱀새, 예수 향기 드러내는 진짜신자로서 신앙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연합회는 오는 19일(화) 실시되는 리틀방글라데시 현장투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우편투표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을 지지하기 위한 한인들의 막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일 한인타운 분리안 거부투표, 한미연합회 리틀방글라데시 현장투표 총력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오는 19일(화) 실시되는 리틀방글라데시 현장투표에 대한 우편투표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을 지지하기 위한 한인들의 막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1시 30분 한미연합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현재 22,000개 투표용지가 배송됐으며 재 발송된 투표지가 3,897개"라며 "투표지를 못 받은 것은 등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국에 전화하거나 한미연합회 사무실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회는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한인들의 경우, 반대를 표시한 뒤 즉시 선거국으로 반송할 것과 함께 선거일인 19일까지 투표용지 배송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반드시 직접 투표장을 찾거나 대리인을 통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방 사무국장은 "3만 여장의 투표용지 중 신청시 날짜기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에 오류가 발생해 발송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위해 결성된 Keep Korea Town 제임스안 씨는 "3주전 한인 타운 분리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방 등을 개설하고 한인 타운 분리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며 "SNS를 통해 접촉된 자들은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며 한인 2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씨는 "한인 타운 안에는 한국인들 외에 중국인들과 백인 등 타 인종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한인 타운 이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준 분들이 많다. 실제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분은 싱가포르인이며 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이유는 한인 타운을 사랑해서"라고 말했다.

제임스 씨는 "대부분의 백인들은 한인 타운 분리안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며 "지난 주간 마당밭에서 한인 타운 분리안 저지를 위해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그때 많은 외국인들을 접촉하게 됐으며 그들이 한인 타운 사수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선거날인 19일은 투표자들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편투표에 참여해 투표용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노란용지의 No란에 검정색으로 칠하고 녹색(흰색) 봉투에 넣어서 입구를 봉한 후 이름과 사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정상 투표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한미연합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투표당일 대리발송하며 한미연합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수거하러 갈 것"이라 말했다.

▲문의: (213)365-5999 (박준호 기자)



지난해 열린 제 2회 연합수련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제 3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주관 7월 16-18일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 부원장 이태준 목사)은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 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Turn To Me(주께로 돌아오라)' 주제로 개최한다.

요성은 재차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 학생 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함께 초교파로 계획한 수련회이다.

기독교의료상조회, 소프라노 최정원 초청 콘서트 6월 24일(주) 오후 5시 제일감리교회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의료상조회(대표 박도원 목사)는 6월 24일(주) 오후 5시, 남가주 지역 회원들을 위한 찬양과 간증 콘서트를 풀러튼에 위치한 제일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유튜브 찬양 동영상 조회수가 1,000만 views를 넘은 소프라노 최정원 씨와 한국 장애인 최조로 미국 음대 교수에 임용된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 차인홍 교수, 첼비 음악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승화 씨가 초청돼 은혜로운 찬양과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한다. 또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해 의료비 나눔으로 도움 받은 회원들의 간증을 통해 실제로 의료비 나



높은 음악을 연주한다. 또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해 의료비 나눔으로 도움 받은 회원들의 간증을 통해 실제로 의료비 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세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위함"이라며 "교단과 교파가 다른 여러 교회의 청소년들이 2박 3일간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음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중보기도와 즐거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귀띔한다.

본 수련회 참가 신청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문 광고의 QR코드 사용 등 록이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본 수련회 강사는 이윤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외국인대교구장).

자세한 문의는 (951)928-4415, (213)905-2544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벨리하나로 교회에서의 후원금 전달받고있는 생명을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목사

해외서 장기기증 캠페인 펼친다 생명을나누는사람들 미주지역 방문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이하 기감) 총회 인준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가 해외 장기기증 캠페인 운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6월 7일 미주 지역을 방문했다.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송고한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어린이

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희망을 나누고자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조 목사는 첫 번째 일정으로 6월 10일 벨리하나로교회(담임 채효기 목사) 주일예배에 참석,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기감 미주연회소속 벨리하나로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시각장애인 1명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했다. 이날 조 목사는 "벨리하나로교회의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

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지속해온 것으로 미주지역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해 벨리하나로교회와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고, "벨리하나로교회의 후원을 통해 지난해 예산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던 집사가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빛을 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채효기 담임목사는 "지난해 성탄절에 이어 올해도 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고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고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각막이식을 대기 중인 고국의 시각장애인이 한인교회의 도움을 통해 빛을 보게 되는 기쁨이 더욱 늘어나길 소망한다"고 후원소감을 밝혔다.

현재 미주지역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사후 각막기증운동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과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이번 서부지역 벨리하나로교회를 시작으로 뉴욕과 워싱턴 등의 지역에서 한인교계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1588-0692(한국 전화)/상임이사 조정진 목사(010-3899-0126/kwdonation@hanmail.net) (기사제공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FACE 주최 제17회 주택구입박람회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FACE 주최 제17회 주택구입박람회

한인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FACE/KCCD 회장 임혜빈)가 주최한 제17회 주택 구입 박람회가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은행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으며 집을 구입하는 과정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박람회를 통해 주택구입의 이유허 및 이득, 크레딧 회복 및 관리 방법, 6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및 융자 회사를 통해 3대1 매칭을 통한 1만5천 달러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융자상품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또한 현재 집을 소유한 경우 집수리, 홈에쿼티 쌓기와 집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미드웨스트대학교 음악대학/대학원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음악대학 및 대학원(BM, NN, DMA) 학위과정을 진행한다. CAMS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 음악 강의가 이뤄진다. 전공은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이며 유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7월 13일까지.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범죄예방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주최하는 범죄예방 세미나가 6월 24일(주) 오후 4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라경미 변호사를 강사로 진행한다.
▲문의: (718)279-1313

2018 CBSN 찬양대합창제 교회합창단 모집

2018 CBSN 찬양대합창제(Global Choir Concert)가 9월 23일(주) 오후 8시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교회연합 합창단을 모집한다. 신청마감은 7월 1일이며 합창연습은 7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문의: (718)414-4848, (347)538-1587

퀸즈장로교회 2018 여름성경학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2018 여름성경학교 유초등부가 6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열린다. 영유아부는 6월 30일(토). 주제는 "아하 예수님 Shipwrecked Jesus rescues!"
▲문의: (718)886-4040

제 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 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6월 30일(토) 오후 7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정인국(틀연주), 이정석(오보에), 민경기(트럼펫), 김하얀(소프라노), 오희평(바리톤) 에이노스유스 오케스트라(퀸즈장로교회). 이외에 소나타 다 끼에서 챔버와 콰이어가 출연한다.
▲문의: (718)288-2447

2018 가족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2018 가족캠프가 6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뉴저지 HNA 팰리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으로 20가족 선착순. 비용은 가족당 300달러의 디파짓이 필요하며 참석시 전액 환불한다.
▲문의: (201)242-4422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

2018 필라교협 복음화대회, 강사 김병삼 목사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도성 사관)가 주최한 복음화대회가 김병삼 목사를 강사(분당 만나교회 담임)로 지난 1일부터 4일간 필라델피아(담임 조진모 목사)에서 연인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첫째 날은 박도성 회장 사회로 영생교회 찬양에 이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행 10:9-16)라는 제목으로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시대를 직시하여 말씀을 담고 살자”고 강조했으며 서울 군장교부인 성가대인 스펠라 과



필라복음화대회를 마치고 임원들과 강사, 순서 맡은 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이어 특별 찬양에 이어 백운영 목사(영생장로교회)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은 김곤 총무 사회로 안

디옥교회 찬양 후 “믿음으로 살라”(삼상15:22)라는 제목으로 “혼탁한 시대일수록 의식과 형식보다



뉴욕교협 임실행위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뉴욕교협 임실행위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뉴욕교협 44회 제 3차 임실행위위원회 및 제 3차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가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동포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가 될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증경회장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행위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 지도와 협력 그리고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목사는 강사 후원비는 요청한 적 없고 주는 대로 받겠다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는 1주일에 2회씩 모임을 갖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각 교회에서 100달러씩 후원해서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순서지 광고는 부회장 정순원 목사가 맡아 준비하며 신규 경우 20% 커미션, 리뉴얼은 10%, 교회는 5%의 커미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주민선교에 대해 박준열 목사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해 조원태 목사가, 추방위기 임양아에 대해 김명순 이사장이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행위위원회는 김상태 목사 개회기도 후 시작됐으며 △예수사랑 실천 운동(미자립교회 보조, 참여, 선정)에 대해 안창의 목사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신현택 목사가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만호 회장은 “선거법 개정은 4차 임실행위위원회에서 선거제목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종과 헌신을 행하라”는 내용으로 김병삼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바이올린 배대진, 피아노 김사론의 특별 찬양 후 호성기 목사(안디옥교회)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은 부회장 정인원 목사 인도로, 구세군교회 찬양 후 김병삼 목사가 “Not a Fan”(눅9:23)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다.

이날 김병삼 목사와 교회 음향 세미나를 이틀간 강의한 김우진 교수에게 감사패 증정한 후 조진모 목사 축도로 마쳤다.

마지막 날 오전에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강사 김병삼 목사가 다년간 군복 생활과 교회 개혁의 경험담을 간증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뉴욕빌립보교회 입당감사 부흥성회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이용길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원로)를 강사로 심령부흥성회를 가졌다. 이번 부흥성회는 작년 10월 플러싱 새 성전

입당 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입당 감사예배로 드러졌다. 이용길 목사는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아래 5번 예배에서 “아멘의 삶”, “찬양의 삶”, “성화의 삶”, “마

른 삶”,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풍성한 말씀을 전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강사 이용길 목사와 신성능 원로목사, 박희열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사진).

(기사제공: 뉴욕빌립보교회)



뉴욕빌립보교회 집회 마지막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유원정 기자)

2018 CBSN 찬양대합창제
Fundraising for the disabled, the homeless & people in need

Global Choir Concert

교회 연합 합창단 모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뉴욕기독교방송(CBSN)은 세계의 수도 뉴욕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합창단들의 아름다운 성가 합창으로 찬양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세계 찬양 대합창제(Global Choir Concert of CBSN)'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찬양제를 통해 뉴욕 일원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정성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할 뉴욕 일원의 교회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성가대의 크기, 성별, 나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마감 : 7월 1일
(합창연습은 7월 7일부터-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합가신청 문의
E-mail: 718-414-4848, 347-538-1587, cbsnconcert@gmail.com

SUN, SEP.23, 2018 AT 8PM
CARNEGIE HALL
ISSAC STERN AUDITORIUM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뉴욕한인사협회 김제성 회장,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정종오 회장, 조앤박 뉴저지 지회장, 뉴욕한인대학 아시안 행정담당관 박필립 목사(우측에서부터).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뉴저지 지회 결성 지회장 조앤박 '무료 한방치료를 선교하겠다'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회장 정종오)는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에 뉴욕한인대학 플러싱 분교에서 정종오 회장과 조앤박 뉴저지 지회장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선교바자회가 지난 2일 지하 친교실과 파킹랏에서 열렸다. 한 주 전 선교 후원음악회에 이어 열린 이번 바자회는 특별히 영어회중을 위한 교회당 건축을 위해 준비됐다.

퀸즈장로교회 바자회는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바자회는 87,749.37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수년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자회 시작에 앞서 김성국 목사가 경건회를 인도하고 있다.

시안 행정담당관이 배석했다. 박필립 행정관은 차후 한의사협회 세미나 장소로 플러싱 분교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계속 한인 한의사 배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종오 회장은 지회장에 조앤박, 부회장 김헬렌, 총무 이은정 한의사를 위촉 임명했다.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뉴저지 지회는 한의학학을 통해 '복음과 의료기술의 선교비전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고 미 동부지역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조앤박 지회장은 "앞으로 연로한 노인층은 물론 다민족에게 무료 한방치료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독교한인사협회 관련 문의는 (213)500-6393, (201)615-733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의 저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출판기념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측안은 한기홍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한기홍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저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9일 오후 6시 본 교회 친교실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다"며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가 된 다윗에 대해 연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원리들을 제 삶속에 적용할 때 경험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이 책을 통해 제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권상욱 목사 찬양인도와 김대성

목사 사회로 열린 출판기념 감사예배는 김영수 장로(실업인 선교회, 문서출판국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지경 집사(본 교회 솔리스트)가 특송을,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행13:21-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준근 장로(GLDI 대표, 자마 설립자)와 영길 집사(연방하원 의원 39지구 후보)가 축사했으며 김광신 목사(본 교회 원로)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한기홍 목사가 출판소감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민승기 목사(OC교협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워십리더 심형진 워십투게더 집회가 부에나팍에 위치한 더 소스 3층 테라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워십리더 심형진 워십투게더 성향 설교 하성진 목사, 특별게스트 연민규 간사

워십리더 심형진 워십투게더 집회가 9일 저녁 7시 30분 부에나팍에 위치한 더 소스 3층 테라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집회는 심형진 전도사(얼바인노리교회)와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했으며 하성진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청년부)가 로마서 5장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 목사는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에 놀랍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수

치스러운 그때 주님 찾아오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며 "죄인 된 상황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특별해졌다.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작정하고 선택하셨다. 어떤 근심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의 임재 경험하는 시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민규 간사(예수전도단)가 특별게스트로 나서 찬양인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모두를 위한 성경세미나' ...성경 난제 풀기 남가주목자교회 송일 목사 6월 매주 화요일

남가주목자교회(담임 송일 목사)는 6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성경 속에 난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모두를 위한 성경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첫 세미나에서 송일 목사는 "성경을 읽다보면 이쪽과 저쪽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거짓 없는 것으로 믿고 전파하는데 대립되는 것이 나오면 막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을 말하는데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확신 있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 아닌 최선을 다해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4주간에 걸쳐 함께 모여 동일한 생각이 함께 풀어가자"고 말한 뒤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날 첫 세미나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난제들을 제시하며 시간의 개념, 인간의 타락, 생존 년수 등을 비롯해 창세기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함께 풀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인도했다. 송일 목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석사, 클레어몬트대학교(종교학석사, 신약학박사)을 졸업했으며 현재 베데스다 대학교 신약학 교수, Bible & Mission Research Institute 원장, 남가주목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본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이며 참가비 무료. 차일드케어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909)267-5656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성경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세미나를 개최한 송일 목사

서부교회게 게시판

남가주주님의교회 김학송 목사 간증집회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북한에 1년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김학송 목사 간증집회를 20일(수) 오후 7시45분에 갖는다. ▲문의: (626)965-9191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 부흥회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동근 목사) 부흥회가 16일(토)과 17일(주) 양일간 열린다. 강사는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문의: (818)709-5776, 709-5776



마가교회 이전 첫예배에서 채동선 전도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자" 마가교회 미성대 채플실로 이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마가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 이전 첫 예배가 10일 성황리에 열렸다. 미성대학교(1818 S Western Ave) 채플실로 마련된 마가교회 새 예배당은 아침 일찍부터 첫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 채동선 전도사는 "지난 9개월 동안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다"며 "기도원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설교를 다르게 하는데 도취돼 있었고 철저히 신학의 굴레의 한계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채 전도사는 "17년간 목회를 해왔는데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됐다.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주님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드렸다. 철저히 주님이 거하시는데 배를 드릴 수 있는 마가교회가 됐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죄 없는 자가 땅에 쓰라"(요 8:7-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채동선 전도사는 "참된 회개는 바램과 원함이 다 증발되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며 철저히 나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본문에 간음한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관심사는 군중들 중에 죄 없는 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그들 무리 중에 죄 없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었다"며 "군중들 중에 죄 없는 자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 혹은 그보다 위에 나 자신이 올라가려는 교만이자 오류"이라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죄 없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 철저히 주님께 서 던지는 돌을 맞으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치 본문에서 철저히 없들려서 돌을 맞으려는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에게 방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중들이 던지려는 돌은 정죄와 비판의 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돌은 옛사람을 부수고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하게 하신 돌이다. 그 돌을 맞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6.25 상기...진리사수기념 때, 현대 전달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 6월 모임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희창 박사)는 6.25 상기 68주년을 맞는 6월 모임을 6.25 상기 구국 감사예배, 진리 사수 기념 때, 현대 전달식을 순서로 가졌다. 1부 예배는 김희창 목사의 인도로 기도 오재식 집사, 성경봉독 로즈금 집사, 설교 김혜성 목사로 진행됐다. 김혜성 목사는 '진토 같은 인생'(시119:25-27)이라는 제목으로 일제시대, 6.25사변 시대, 목회자 자녀를 겪은 시대, 목회자 시대의 고난들을 설명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을 강조했다. 2부 특강에서 이기홍 목사는 '6.25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역할과 하나님의 대한민국사랑'을 주제로 통해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구국기도에 원태어 제독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전능성이 작용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

다. 이어서 한반도의 전쟁과 환란 중에 진리를 사수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 김희창 회장이 조국에서 만들어온 진리 사수 기념 피인 기독교군인회 마크가 들어간 현대를 한국군 육군군복 1기생인 김혜성 목사에게 대표로, 그리고 전체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조국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결심을 다졌다. 한편 기독교군인회는 매일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자세한 것은 (213)268-936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 6월모임에서 이기홍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세례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협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양예배: 오후 5:30 토요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 www.dkc.org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은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없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학교: 오후 5:30 세례기도: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www.msncc.org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경인양예배: 오전 7: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성경대회: 오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매일) 주일학교: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웨스턴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저녁 7:3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www.westonchurch.org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수요성경기도: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학교: 오후 5:30 세례기도: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p>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EH), Fax: (310)530-8400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토런스노인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com</p>

교회가 사회·직장보다는 성 평등

정재영 교수, 개신교인 인식 조사 발표

한국 교인들은 교회가 사회나 직장보다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성별에 따라 고령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열린 8차 한국교회탐구센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해 분석

한 것이다.

한국사회 성 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답변 비율은 직장이 77.6%로 가장 높았고, 가정(63.8%) 학교(45.8%) 교회(33.9%) 순이었다.

교회 내 역할 실태 조사 결과 ‘남녀 구분 없이 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주일 예배 기도도를 남녀 구분 없이 한다’는 응답은 45.2%였다. 남성교인 39.7%, 목회자가 10.2%이고 여성

교인은 2.8%에 불과했다. ‘심방을 남녀 구분 없이 한다’는 응답은 46.2%로 조사됐다. 목회자 28.0%, 여성 19.1%, 남성 2.6%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 성향은 예배와 심방에 있어 남녀 구별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위성 조사 결과에 못 미치는 수치다. 주일 예배 기도도를 남녀 구분 없이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6.3%, 심방은 75.3%로 모두 70%를 상회했다.

교회 봉사도 성별 차가 컸다. 주자봉사와 체육대회는 남성이,

바자회와 주방봉사는 주로 여성이 담당했다. 주자봉사는 남성이 71.6%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3.5%에 불과했다. 남녀 구분 없이 한다는 답변은 17.2%였다. 반면 주방 봉사에 참여하는 남성은 1.4%에 불과했다. 여성 64.1%였고, 남녀 구분 없이 한다는 응답은 32.6%에 그쳤다.

정 교수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전래 초기부터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집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여성이 교회에선 아무개 집사나 권사로 불리는 것 등이 영향을 줬다”며 “교회 내 지위나 역할이 남성보다 부차적인 경우가 많지만 신앙 활동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성의 차별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공적 영역서 ‘종교의 자유’ 위협받고 있다

동성애 개헌반대 교수연합 국회의원회관서 학술포럼

#1. 한동대는 최근 동성애를 미화하는 특강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을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 한 이단 단체가 이 사실을 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 아닐까.

#2. 2006년 공군 군복들이 부대 내 강단에서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교했다. 설교 내용에 포함된 한 이단 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군복은 과연 이단 단체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필

카. 국가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반면, 공군 군복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와 타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교리의 탁월성을 전파할 자유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기독교 미션스쿨은 선교와 기독교교육이라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런데 만약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군 군복은 성직자인 동시에 장교 신분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복은 목사로서 타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전파할 자유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단 여부를 목사가 판단해야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릭 연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으려는 급진적 사상은 잘못된 성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시민권 논란이 일단 수용되고 나면 동성애는 자연적이고 합법적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며 “동성애 시민권 리는 훗날 기본적인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를 반대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 방하고 금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개인이 지닌 옳고 그름의 가치관, 윤리의식, 신앙가치관을 강제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선 종교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던 그것이 차별행위로 둔갑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치열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1개주에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종교의자유회복법’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 교육부 지시에 ‘버티기’

총장 파면 조치, 정관 복구 등에 거부 시사

내용을 겪고 있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가 ‘버티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총장 파면 조치 등 ‘교육부 실패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1일 충남 아산 삼광교회(박노섭 목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총신대 정관 원상복구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핵심 안건인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조치에 대해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검토하겠다”며 이행을 보류했다. 정관 복

구에 대해서도 “절차상 사학법에 어긋남이 없다”며 거부를 시사했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단이사회는 교육부에 오는 8일로 예정된 징계지시 보고 시한을 연기

해 달라고 원원키로 했다.

이같은 재단이사회 결정에 총신대 구성원들과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는 즉각 반발했다. 원위원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사회가 학내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그대로 집행해 8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하고 재단이사를 전원 직무정지 시킨 뒤 임시이사를 파송하라”고 촉구했다.

예장합동총회도 같은 날 총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총신대가 지적받은 모든 비리를 완전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존에 내린 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총회 산하 노인들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재단이사의 목사직 면직을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예장합동 용천노회(노회장 이병규 목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 김남웅(우리교회) 목사를 면직시켰다. 김 목사가 지난 3월 용역업체 직원인 농성 중이던 총신대 학생들과 충돌하던 당시 현장을 동행해 장도리로 문을 파손한데 대한 징계성 조치였다.

교단 관계자는 “총신대 정관이 복구되지 않는 한 김 목사가 이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용천노회의 면직 결정은 재단이사에 대한 첫 징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단이사가 소속된 다른 노회들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 원칙 마련

통일선교연합연구협의회 사랑의교회서 1차 공청회

통일 시대를 대비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교계 및 해외 한인교회, 세계 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통일선교 원칙 및 전략을 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일선교연합연구협의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통일선교연합연구(가칭) 제1차 공청회’를 열고 통일선교의 대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송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훈련센터와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선교아카데미가 지난해 말 조직한 단체다.

공청회에서는 4가지 분과로 구성된 연약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이들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건 연약 중

제3분과인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교회의 사명’이다. 이 분과에서는 통일 이후 기독교 복지기관 및 학교, 교회 설립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 담겼다.

연약 내용에 따르면 통일 이후 기독교 복지기관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를 우선 대상으로 삼되, 추후 지역 공동체 전반을 돌보는 통합 돌봄센터를 목표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내 기독교교 설립을 위해 사전에 관련 법과 제도 구축을 연구할 것, 북한 기독교교 교사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조언했다.

통일 이후 교회 설립에 관해서는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3원칙이란 ‘창구의 일원화’ ‘단일 기독교단’ ‘자립의 원칙’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별 단체와 교단, 교회별로 제각각 (재건) 계획을 세웠을 뿐 합의된 원칙이 없었다.

조기연(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는 “3원칙은 기존에 한국교회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논의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개교회가 경쟁적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면 이단 대치가 어렵고 선교지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원칙을 지켜 북한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회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이질화의 극복 방안으로는 기독교인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선교 교육이 제시됐다. 제2분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하여’를 발표한 임현만 백석대 교수는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이들을 북

음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과 탈북민이 먼저 통일선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치유와 화해를 위한 통일교육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통일 한국의 다음세대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유엔 평화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임 교수는 “유엔 평화대학을 세워 남북한 청년과 중국, 러시아 등 유학생을 교육한다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후 국내에서 2차 공청회를 연 뒤 미주 지역에서 3차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내용은 10월 말쯤 발표되며 이때 채택된 연약서 및 해설서는 5개 국어로 번역돼 발간된다.

한기총, ‘한국교단연합추진위’ 구성

한교총과 통합 명시 않고 5인위 구성 진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한국교단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연합기구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기총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연합

건’을 놓고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안건을 제안한 엄기호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한교총과 통합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엄선형 전 대표회장, 조정삼 공동회장, 이진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 총회장 등은 “기구 통합

문제는 한기총 정관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정수 공동회장도 “한교총 회원층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한기총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하태초 명예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며, 한기총이 만약 한국교회 대통합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어느 교단에

가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통합의 큰 원칙은 합의하고 추후 세부내용은 논의하면 된다”고 맞섰다.

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한교총과의 통합을 명시하지 않고 5명으로 구성된 한국교단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구통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은 엄 대표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작성했던 ‘한기총·한교총 통합합의서’는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새 시대 선교전략 흘러보낼 협력의 장 마련”

예장합동 GMS, 7년만에 세계선교대회 개최

“선교계의 변화 없이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지혜가 선교를 감당할 사역지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의 설명에선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다. 함께 자리한 GMS 관계자들도 7년 만에 개최되는 선교대회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7일 경기도 화성 GMS 선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개최될 세계선교대회의 의미와 비전을 소개했다.

GMS가 선교대회를 연 건 2003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선교대회가 주목받는 것은 세계 98개국에 25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관의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대회를 통해 선교의 성과에만 취해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 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월은 세계선교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제규모의 굵직한 선교대회가 줄지어 개최된다. 오는 18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전략회의(NCOWE)’를 시작으로 ‘GMS 2018 총회세계선교대회’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가 잇따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알맹이 없는 선교대회’가 아닌 대한민국 선교의 내실을 다지는 발판으로서의 선교대회를 위해 GMS가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김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는 단순히 선교사들의 영적 부흥과 사역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부여하신 은혜와 영성이 파송교회에 물려 이 땅의 모든 선교 동역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GMS 본부총무 조기산 목사는 “그동안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뤄지던 사역지에 중박투자가 이뤄지거나 장기적인 투자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회 둘째 날 같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14개 지역별로 모여 사역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GMS는 13개 영역으로 사역을 분류해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축적된 노하우를 집대성할 예정이다. GMS 선교총무 조용성

목사는 “각 지역과 사역 분야마다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도 각기 달라야 한다”며 “기존에는 본부 차원에서 전략서가 나왔지만 이번엔 각 지역 선교부에서 해당 지역의 사역특성이 반영된 전략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대회 개최 전 정보전달용으로 발간해 대회가 끝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전략서가 아닌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서를 만들어 선교사들이 가이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대회 후엔 타 교단 선교부 및 선교기관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선교사 추방에 대한 출구전략도 언급됐다. 김 목사는 “선교사 추방문제와 선교사 과포화 상태로 인한 어려움 등 지역마다 당면한 상황들이 달라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2-3년 사이 중국에서만 GMS 파송 선교사 50여 명이 추방당했는데 이 과정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선교지 재배치 등 향후 전략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거주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며 “선교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국내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브리지(G-Bridge)’를 주제로 2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 세계선교대회에는 7년 이상 사역 중인 선교사 700명을 포함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 이상복 목사는 “‘복음의 다리(Gospel Bridge)’ ‘열방의 다리(Global Bridge)’ ‘세대 간 다리(Generation Bridge)’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현재까지 전국 160여 교회가 헌신예배를 통해 선교대회를 응원해 준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새벽 예배, 저녁 집회, 주제 강의, 청년·대학생·MK·다움세대 선교대회 등으로 진행되며 주제 강의에는 세계 선교계의 거장 조나단 봉크(Jonathan J. Bonk) 박사가 ‘선교와 돈’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장은 “선교대회를 통해 GMS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선교전략을 전 세계 선교지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선교사적 삶 사는 ‘선교적 교회’ 지향한다

6월 26일 금관교회서 ‘금관선교콘퍼런스(KMC)’ 개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요즘 국내의 교회의 주요 관심사다. 선교가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신자들도 삶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간다. 또 제2, 제3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른바 ‘선교적 교회론’은 그동안 학자나 관심 있는 목회자 사이에서만 논의돼 왔으며 지역 교회가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교회 체질 개선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 서울 중랑구 금관교회(김정민 목사)는 2017년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해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교구 이름을 ‘공동체’로 바꾸고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이 해외 선교사와 연결해 자체적으로 후원하며 선교지를 직접 방문한다. 선교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회의 국내의 선교비도 대폭 늘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섬김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교회 체질 개선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 서울 중랑구 금관교회(김정민 목사)는 2017년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해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교구 이름을 ‘공동체’로 바꾸고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이 해외 선교사와 연결해 자체적으로 후원하며 선교지를 직접 방문한다. 선교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회의 국내의 선교비도 대폭 늘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섬김 활동도 활발해졌다.

금관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이후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와 국내 목회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열고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정보와 재교육, 영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선교적 교회를 위한 협력 기반(플랫폼)을 마련한다.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회 금관선교콘퍼런스(KMC)를 실시했고 올해 2회째를 맞았다.

한 번 열고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정보와 재교육, 영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선교적 교회를 위한 협력 기반(플랫폼)을 마련한다.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회 금관선교콘퍼런스(KMC)를 실시했고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금관교회는 오는 26일부터 3박 4일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목포에서 ‘2018 KMC’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선교적 교회와 21세기 목회’를 주제로 열리는 KMC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다양한 이슈와 내용을 다룬다.

KMC 이사장인 김정민 목사는 “금관교회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해 목회자들을 섬기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속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집회와 선택강의, 콘서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은 교파를 초월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저녁집회에는 진기현(호주 시드니주안교회) 김동현(서울 은평광리교회) 안희복(세종품의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와 심자가와 충성, 비전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선택강의에는 총 7명이 나온다. 우선 신학자들은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재를 발표한다.

선교의 창 (103)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8복(福)에 나타난 선교사의 덕목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한다. 복에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세상적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한 오복(五福)이 있다. "수(壽):장수하는 것, 부(富):풍요, 강령(康寧):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효덕(攸好德):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고종명(考終命):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누리려는 영적인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8복은 소위보다 존재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선교사는 복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방인 영혼구원을 위해 파송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된 요소가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온유란 말은 헬라어는 "프라이에이스(πραεις)"로서 사나운 짐승이 훈련으로 길들여져서 다루기 쉬운 짐승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한자는 따뜻할 '온(溫)' 부드러운 '유(柔)'로서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로서 온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온화한 성품을 가리킨다. 중이를 구기면 끝까지 구긴 상태로 있지만 비단 천은 아무리 구겨도 다시 펴진다. 선교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심자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8복(福)은 부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그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 선교사는 복된 삶을 위한 전제된 요소를 지닐 때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것을 의미한다. 선교사는 주님의 가슴을 품고 현지인들을 붙잡고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야 한다. 이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6.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7). 청결이란 단어는 헬라어 "카카로스(καθαρός)"로서 깨끗함, 순전함, 투명함, 단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속적 욕망 등이 없는 바른 자세를 말하는 데 이는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순전하고 정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수한 상태를 말한다. 선교사는 애용함으로 늘 마음이 청결하여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7.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이틀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εἰρήνη)"이다. 이 에이레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샬롬(shalom)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화평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본문에서의 화평은 단순히 현상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선교사는 화평의 사자이다. 현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평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자이다.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10). 의는 히브리어로는 체데크(chedek)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δικαιοσύνη)"인데 윤리적인 의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인 의이다. 그러나 이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란 성격이 강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난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주님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맺음 말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수미(首尾) 상응의 완결미를 보이고 있다. 팔복의 각 부분이 '복이 있나니(마카리오이)'란 선언으로 시작되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팔복은 근본적으로 이 지상에서 행해야 할 천국 시민의 법과 그 결과 주어질 종말론적인 복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8복은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귀결되어진 천국백성의 원리와 특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8복에 나타난 속성을 덧입어 갈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이다. 이는 어찌 선교사뿐이겠는가? 주님을 따르는 언약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체장암의 진단방법

대부분의 체장암 환자는 통증과 체중감소, 황달을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식사 후에 심해지고 등 양 상복부에 온다. 또 통증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지속됐다가 회복되는 것을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체중감소가 심한데 이는 식욕이 감소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량의 음식을 먹은 후에도 쉽게 배가 부른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종양이 체장관을 막게 되면 체장의 소화효소가 소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변에 기름이 뜰 수 있다.

황달은 혈중 빌리루빈이 높아서 생기는데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다. 체장의 두부는 담도와 가까운데 두부의 종양이 커지면서 담도를 막게 되면 담즙이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된다. 이때 축적된 담즙은 혈중으로 역류해서 황달을 일으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변이 빌리루빈이 없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누런빛이 없는 회색으로 변하게 된다.

체장암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양이 꼬리부위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특히 어렵다. 체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은 체장암 증상의 환자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자신의 증상이 체장에서 오는 증상인가?

체장 질환의 증상 중 상복부가 아픈 증상은 위염과 같은 위장 장애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한국인과 같은 위장 질환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체장 질환보다는 위장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복통 이외에 체중감소와 황달이 나타날 때 체장 질환을 의심해 본다.

둘째, 만약 증상이 체장에서 온다면 이것이 암인가?

담석이 담낭에서 굴러 나와서 체장을 막아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노인층에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젊은 층에서는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로 췌장염이 생긴다. 그 외에도 혈중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췌장염의 원인이 된다. 급성 췌장염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혈액검사 등으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으며 만성 췌장염도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셋째, 체장 질환이 체장암이라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가?

일단 초기에 발견되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한 후 악성 종양으로 판명되면 절제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체장암 진단 때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뒤늦은 경우가 더 많다.

초음파 검사는 안전하고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다. 초음파를 통해서 담낭이나 담도 질환이 있거나 담도가 막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체장에 혹이나 결석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체장에 작은 종양까지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층촬영(CT)은 체장암 진단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초음파와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체장을 해부학적으로 볼 수 있고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체장 이외의 장기에 대한 전이 여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RI는 주로 CT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

일단 CT 검사에서 체장에 혹이 나타나면 이것이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내시경을 통한 초음파검사다. 과거에는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조직을 떼어내는 복잡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의 끝에 달린 초음파를 이용해서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 후에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떼어내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악성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악성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지만 양성으로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나 CT 검사로 종양이 계속 자라는지를 관찰한다.

이처럼 위암이나 대장암은 정기적인 내시경검사로 알 수 있고 폐암도 엑스레이나 CT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체장암은 초기에는 CT 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전립선암은 80%가 혈액검사로 이상이 나타나지만 체장암은 혈액검사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적으로 그리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의사로서도 체장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p> <p>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의 교수진</p> <p>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총회원들이 주님의 목양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돕겠다”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21:15)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열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2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에게 총회장으로서의 소감을 물었다. 또 앞으로 1년간 총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을 들어보고 미주 한인교회가 가야 할 방향 및 과제, 또 개인적인 목회철학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메일로 질문한 김재열 목사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소감

10여 년 전부터 여러 단체들의 관련 인사들로부터 장을 맡아서 이끌어야 한다는 권유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총회나 단체 기관보다는 지역교회를 먼저 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내 능력에 거기까지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사양해 오면서 ‘혹시 비전랜드 건축이나 끝낸 후에는 모르겠지만...’라고 했는데, 말이 씨앗이 된 것처럼 작년에 건축이 끝나자마자 금년 총회에서 총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체나 기관의 장이 된다는 것은 명예보다는 섬기라고 주신 직책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이번 아젠다 절차에서도 관례적으로 행하여 왔던 휘장 분배(꽃 증정)순서를 미리 삭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섬기는 본 교회 교우들도 모두 다 자리를 떠난 새벽 1시에 총회장직에 취임을 하게 되어서 이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기라고 맡겨진 직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한 해 동안 섬김의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과 비전

교단 총회장의 실제적인 역할은 총회회의 때에 의장(moderator)으로서 사회자 역할을 하고 총회가 파회하면 1년 동안 교단을 대표하는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야 마땅한데 섬기는 지교회와 새 예배당 마무리 건축에 힘을 쓰다 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에 기도하며 숙고하면서 세운 이번 회기의 주제인 “내 어린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목양 사명을 우리 총회원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두 잘 감

당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목양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개발하여 공유했으면 합니다.

물론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와 소명 가운데 이해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목양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들이 강건해야 합니다. 양은 순한 짐승이



바른 신학과 성경중심의 개혁주의 신학 확장 노력 ‘알찬교육’ ‘널리선교’ ‘고루봉사’로 지역교회 섬겨

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양들은 결코 순하지 않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양들로부터 조금 성장하면 목자를 들이받는 빨간 양들도 많고... 비생산적인 양들도 날로 늘어만 가는 현장에서 목양을 해야 하는 목자들이 영육이 강건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목양의 기둥이 되는 바른 신학 정립이 최우선입니다. 바른 신학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성경관에서 말씀 최고 우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 동안 가능한 체력을 동원해서 바른 신학과 성경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을 확장하여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를 내조하는 사모님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SNS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

여 문제들과 아픔들을 우선적으로 나누면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내실에 더욱 힘써보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교류하는 교단들과 피차에 목회지를 이동할 때 조건 없이 자유롭게 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담임목사 초청 우선은 이민교회 출신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이민교회 후임목사들도 이제는 국제적인 안목과 리더십을 갖춘 한국교단의 지도자들도 자유롭게 이민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교단들과의 정책차원에서 걸림돌들이 없도록 수렴해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1년 동안 무슨 큰 정책과 비전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어진 여건과 기회에서 내실 있는 섬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평소에 갖고 계신 목회철학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록된 말씀(Written Word-로고스)이 살아있는 말씀(living Word-레마)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신학이 신앙이 되고, 교리가 삶이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사본적인 신학보다는 보다 더 실제적이고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신비 체험 중심의 신앙도 바른 계시말씀의 터전 위에서 체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첫 부르심 자체부터가 미약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초자연적인 부르심의 상황에서 부르셨고 후에는 말씀으로 정립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목회의 소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목회 철학들이 자연스럽게 섬기는 교우들에게도 입체적인 신앙인으로서 계시의존 사상이 삶의 체험적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신학적 원리와 생활의 적용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의 목회비전은 우선 3대 비전-‘알찬교육’ ‘널리선교’ ‘고루봉사’를 통해서 ‘백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비전들은 보편적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며 이중에 14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은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고루봉사’를 해야 하는데 ‘네이버 헬핑 센터’와 ‘청소년 힐링 센터’를 개설하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시설을 갖추므로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숭실 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도 다녔지만 고3 때에 마산 요양소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을 위해서 담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되었던 치과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고 교육전도사로, 심방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목회를 포기하고 평신도로 7년간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 다시 총신대학교와 신대원 그리고 합동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마치고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서울 강변교회(김명혁 목사 재직당시)에서 부교역자로 7년을 섬기고 송파에서 개척 교회를 하던 중에 토론토 열린문교회에 초청을 받아 이민목회를 시작해서 현재 뉴욕센트럴 교회를 섬기기까지 31년째 북미주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KAPC 총회는 1989년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지만 뉴욕에서의 건축은 무려 18년에 걸친 길고 긴 인내와 시련의 훈련이었습니다. 끝까지 목사를 믿고 따라와 준 교우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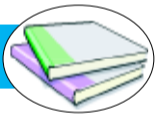
가정적으로는 이미 성장한 아들(43세)과 딸(41세)이 있고, 7월이면 ‘나그네 대학’ 7학년에 입학하는 평생의 반려자 아내 김숙희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섬기는 사역은 WMS 이사, 시드국제선교회 이사, 이사장으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라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되뇌이는 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인데 그래서인지 저는 평생 늘 모든 일에 막차를 타고 다닌다고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책 소개



“치유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

손영규 목사

(이비인후과 전문의/의학박사/ 건양대학교대학원 치유선교학 교수)

선교사로, 기도의사로, 목사로 살아오며 병들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들의 삶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손영규 박사가 의학의 눈으로 신학을 바라보며 신학의 가슴으로 의학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치유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치유”를 출간했다.

저자는 “왜 의과대학에서는 신학적 인간론(Theological Anthropology)을 강의하지 않을까? 왜 신학교에서는 육신적 인간론(Physical Anthropology)인 해부/생리



학을 강의하지 않을까? 전인치유의 현장에서 이러한

전인치유 현장에서의 목마름 풀어내

사고에 대해 목마름이 가득했다”고 고백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환경과 스승을 통해 훈련을 시켰다. ‘총체적 치유’에 관해서는 한국 기독교 치유사역에 주춧돌을 놓으신 고(故) 이명수 박사님과 ‘신학’에 관해서는 고(故) 김의환 목사님의 지도가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도 적었다.

본서는 파트 1 “창조와 건강”에서는 ‘세계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창조와 건강’을, 파트 2는 “타락과 질병”의 파트로 ‘세계의 타락’, ‘인간의 타락’, ‘타락과 질병’을, 파트 3 “회복과 치유”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치유’,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치유’, ‘그리스도의 초림과 치유’를, 파트 4 “완성과 온전함”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치유’, ‘새 하늘과 새 땅’, ‘치유사역의 완성과 온전함’으로 구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15면으로 계속)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18학년도 여름 및 가을 학기 학생 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화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여름 및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 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18학년도 가을학기	• 원서 마감일: 2018년 8월 18일 • 개강수련회: 2018년 8월 27, 28일 오후 7시 • 장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여름학기 박사 과정 Intensive 과목
(1) NT-711 바울의 신학과 목회 (Pauline Theology & Ministry, 3학점) • 담당 교수: 최갑중 박사(백석대 신약학 교수 및 총장 역임) • 일정: 2018년 7월 23일(월) - 26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2) CH-721 기복 역사 속의 부흥운동 (Revival Movement through the Ages, 3학점) • 담당 교수: 오덕교 박사(합신대 역사신학 교수 및 총장 역임) • 일정: 2018년 8월 6일(월) - 9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문의처: 김동진 학감(626-675-8010) otdjkim@sbcglobal.net

박사 과정 안내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목회학 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 졸업학점: 36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2) 신학 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M. Div), 혹은 신학석사(Th. M)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임(입학시)
• 졸업학점: 48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 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4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5)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업 활동에서의 영성

기업 활동에서의 영성의 세 번째는, 기업 세계와 관련을 맺어야 할 의무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우선 과제는 기업 활동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기업 활동이 인간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영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때로는 다국적 기업이나 대형 금융 기관 같은 기업 세계가 악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근거 없이 말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기업가로서 삶도 선교사나 목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성실, 정직, 신뢰, 공평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영성은 실패하고 실수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기업 세계만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곳은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만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재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이 찾아낸 길과는 다른 좁은 길이이다.

여덟 번째 영성은 실패하고 실수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기업 세계만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곳은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만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기업 활동에서의 영성 네 번째는 기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영역은 영적, 영적 분별력 가져야 공의, 성경 권위 인정, 하나님 의지하면 실패 두렵지 않아

업에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다. 기업의 활동과 규정은 전형적인 서구 문화의 세속화 모습으로 기독교적 원리는 기업의 문화와 서로 상반된 존재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항상 세속화에 대한 긴장과 갈등과 싸워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과 지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가르침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 영성은 기업 활동에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의무이행을 서로 점검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비판을 실천해야 한다. 마치 성경적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정글에서 숲을 헤쳐며 살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시므로써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며, 우리의 강한 심령을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어루만져 주신다.

잠언 3장 5-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하셨다.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영성의 참된 의미가 나타난다. 기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비결이다.

다섯 번째 영성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의”이다. 마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어진 상황을 연구하면서 노력한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글에서도 빠

(14면에서 계속) 한편 부록으로 Q&A, 구약의 치유기록, 예수그리스도의 치유기록, 제자들의 치유기록 등을 수록해 좀 더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사역을 이해하도록 펴냈다.

본서를 추천한 함성익목사(창성교회 담임)는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구축 시작이고, 치유사적인 상관관계를 잘 풀어냈다”고 치하했으며 이 외에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정영택 목사(경

주제일교회 담임), 김경영 목사(경주교회 담임), 박상은 목사(샘병원 대표원장)의 추천의 글이 수록됐다.

(이성자 기자)

(다음에 계속) dr.jameskoo@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왕상1:22-28)

본문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예전에 약속하신대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함을 간구하고 있는 그 때 신지자 나단이 들어오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도 활기가 도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22절).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교역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행전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성령충만한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본문에서 밧세바가 이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소원을 아뢰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오니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간절히 아뢰었다. 그때 다윗왕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응답합니다.

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으로는 더욱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사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더욱 성령충만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화 왕이 가로되(왕상1:29)

다윗왕은 나이 들어 몸도 잘 가지 못하고 침실에만 있었는데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들은 후에는 갑자기 그 옛날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던 성군이요 성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왕이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공장 모든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는 날이 갈수록 결사적인 후회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으로는 더욱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사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더욱 성령충만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라(왕상1:29-30)

본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왕이 늙어 힘을 쓰지 못한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9절, 30절에 히브리 원문에는 “반드시 ‘정녕’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그 뜻과 섭리대로 영원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오늘도 반드시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뜻대로 이뤄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으로는 더욱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사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더욱 성령충만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목 저희가 왕 앞에 이르러(왕상1:31-32)

다윗왕이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이 결정됩니다. 이들은 다윗왕에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에게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자손 대대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오

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으로는 더욱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사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더욱 성령충만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왕상1:33-37)

본문은 다윗왕에게 부름을 받은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왕과 솔로몬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본 구절에 주목할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으로써 이미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응답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강한 소망의 확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가 잘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왕상1:38-40)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은 말 한마디 못 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의 부름을 받은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부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땅이 갈라

질 것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뤄졌습니다.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진실하게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때 힘든 일도 있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신앙 때문에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 은혜와 복을 받을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cities including Las Vegas, Woodbourne, Levittown, Johns Lane, Bostonskorea, Scaleybark, Horsham, and Philadelphia.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NYSKC FAMILY CONFERENCE Washington, DC 2018

June 26-29, 2018
UNIVERSITY OF MARYLAND

Contact Us
Tel. 845-355-8829/703-725-6468
646-269-0045/646-203-2644
nyskcusa@gmail.com
www.nyskc.org



"The Comforter has Come" (John 14:26)
"성령이 오셨네" (요 14:26)

<p>Nyskc World HQ</p> <p>총 재 : 피 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 고센 목사</p>	<p>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연구학회</p> <p>학 회 장 : 윤사무엘목사 (G.T.S.학장) 학회실장 : 최 기 성 목사 (답스페리한인교회)</p>	<p>NYSKC Family Conference DC 2018 동부본부 조직위원회</p> <p>본 부 장 :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예배분과 : 심대식 목사 (로고스찬양교회) 재 정 분 과 : 이은숙 목사 (우리들교회) 부본부장 : 한 훈 목사 (갈릴리순복음교회) 음악분과 : 김국민 목사 (알링턴한인교회) 대외협력분과 : 류광현 목사 (꿈이있는교회) 총 무 : 심정기 목사 (알렉산드리아교회) 교육분과 : 김영배 목사 (후랭코니아교회) 분 사 분 과 : 박희숙 목사 (요나장로교회)</p>
--	--	--



When the worship is restored, the church is risen, the nation is renewed, and the family is revived.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NYSKC THEME)